

아주대의료원소식 12

2003

통권 제 107호 / 발행일 2003. 12. 1 / 발행인 겸 편집인 손효범 / 발행처 아주대의료원 홍보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 (442-721) 전 화 (031) 219-5114

· 목 차 ·

- 2 포커스
PET CT 도입
-전신 암, 20분 안에 발견
- 3 선인재 칼럼
이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
- 4 의학 리포트
당뇨병 환자 발기부전
숨기지 마세요!
- 5 나의 연구 나의 테마
소화관 기능 이상의
원인 규명과 치료를 위하여
- 6 진료교실 말초 혈관 질환
- 8 병동클럽 NCU
- 10 유명인과 질병 갑상선기능항진증
- 11 특집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과대학장 인사말
아주대의대 학생활동
의학부의 특성과 방향
간호학부의 특성과 방향
24시간 면학 분위기, 최신식 시설
교향학생 프로그램 체험기
특성화 선택실습 체험기
해외 봉사활동 체험기
- 22 장기기증은 사랑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 23 AMC NEWS
- 29 건강 Q&A
- 장기적 비루 증상
- 30 스포츠 의학 테니스 열보
- 31 잊을 수 없는 환자
천식의 베테랑이신 어르신
- 32 음식 속 건강 선식과 생식
- 33 침단의학의 현장- 내시경 IV 관절경
- 34 나의 건강상식은? 폐
- 35 혈액병원 탐방 人本의료재단
- 36 의료원발전 후원내역
- 38 전문클리닉 소식
- 39 진료시간표

Global Ajou, Global D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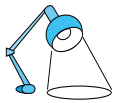
아주의대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글로벌 캠퍼스에서 학문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세계 속의 대학
아주의대가 실현하고자 합니다.

아주의대의 목표는 세계인입니다.
세계무대에서 당당히 제 몫을 다하는,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참된 의료인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아주의대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선진 의료술을 습득하고,
다양한 의료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세계로 향하는 아주인의 꿈을 키워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라는 큰 무대에서 활약하는 미래를 꿈꾸신다면,
아주의대로 오십시오. 세계로 가는 길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PET CT 도입- 전신 암, 20분 안에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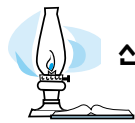
아주대학교병원은 지난 11월13일 목요일 오후 2시 암 진단을 위한 첨단 의료장비, PET CT(Discovery ST+8 slice CT, General Electric Co)의 가동식을 갖고, 본격적인 환자진료에 들어갔다.

PET CT는 말 그대로 양전자 단층촬영(PET)과 단층컴퓨터 촬영기(CT)를 결합한 진단 영상장비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단장비인 MRI, CT는 우리 인체의 해부학적 영상을 얻는 반면, PET은 세포의 생화학적 기능의 변화를 얻는 장비이다. 예를 들어, 암의 경우 MRI, CT는 어느 정도 형태를 이루어야 발견할 수 있지만, PET은 암이 형태를 이루기 전 생화학적 이상, 기능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암을 초기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암이 조기에 발견될수록 생존율 향상 등 치료성적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유용한 장비라 할 수 있다. 이에 PET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암, 뇌 질환 그리고 심장질환 등을 조기에 발견하는 첨단 장비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세포의 생화학적·기능적 변화를 통해 다른 부위에 전이됐는지, 어느 정도 악성인지, 항암 및 방사선 치료후 효과 여부, 또 재발됐는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질병의 조기진단과 치료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영상장비로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아주대병원에 도입된 PET CT는 GE사의 최신 기종으로, 기존 PET 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우수한 장비로, 약 20분 정도면 전신의 암 평가가 가능하다.

가동식에 이어 개최된 심포지움은 「PET CT의 유용성」을 주제로, ▲ 갑상선암에서의 PET 이용(서울대 의대 정준기 교수) ▲ 폐암의 CT 영상 ; 역할과 한계점(아주대 의대 박경주 교수) ▲ 폐암에서의 PET CT의 유용성(성균관대 의대 김병태 교수) ▲ 아주대병원 중앙질환에서의 FDG PET 이용 사례(필라델피아 PVAMC(보훈병원)의 박찬희 교수) ▲ 직장암에서의 PET CT의 임상적 유용성(뉴욕 Mount Sinai의대 김천기 교수) ▲ 신경질환에서의 PET의 임상적 유용성(연세대 의대 이종두 교수)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

어제 아버지를 뵈었다. 여든이 넘었어도 늘 정정해 보이시던 아버지가 유난히 지쳐 보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해지지만 자주 찾아 뵈기는 쉽지 않다.

아버지는 나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며, 나는 늘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해 왔다. 아버지는 자식들 앞에서 남에 대한 불평이나 욕을 하신 적이 없으며, 언제나 집안의 굵은 일을 도맡아 하셨다. 아버지는 평생을 사회사업에 바치셨는데, 어려운 형편에도 내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거의 매주 한 두 권씩 책을 사다 주셨으며, 형과 나는 아버지가 사다 주실 새 책을 기대하며 흥분된 마음으로 한 주일을 보내곤 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아들의 성적이 전교에서 바닥을 기어도 꾸지람 한번 없이 믿어주시고 기도해 주셨다. 아버지에게 비싼 장난감이나 옷을 선물 받았거나, 아버지와 좋은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거나, 화려한 휴양지에서 휴가를 보낸 기억은 전혀 없다. 그러나 내가 4살 때 크리스마스 예배에서 보았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로부터 지금의 80이 넘어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한 노인까지, 그 분은 늘 아들 곁에 계시며 꿈과 용기를 심어 주셨다. 그 곁에는 항상 조용하고 인자하신 어머니가 계셨다.

부모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절제있는 사랑과 믿음, 올바르고 강하지만 조급하지 않았던 모습, 검소한 삶 그리고 깊은 신앙심은 나의 가슴에 너무나 강렬하게 새겨져 있어 때로는 나의 삶에 부담이 된다. 특히 고등학생이 된 아들에게서 서툰고 어리석으며 참을성이 없고 게으른 아버지인 내 모습을 발견할 때이다.

나는 1991년에 아주대학교에 오게 되었는데,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인지 그 시절 아주대학교병원의 탄생을 위해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주셨던 여러 어른들, 젊음을 모두 바치고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동료 교수들과 교직원들을 생각하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때가 많다. 그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의 꿈만이 있었으며, 오로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서로 간의 갈등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제 아주대학교의료원은 훌륭한 어린이로 성장했으며, 내년이 개원 10주년을 맞는다.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뿐이라고 생각한다. 자 10살이 된 아주대학교의료원이 중년이 되었을 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부모님의 모습같이 너

무나 강렬하게 가슴에 새겨져서 그 벅찬 감정을 억누를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매우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 모두 맞을 수 있지만, 다른 점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강인한 신념이다. 나는 지능이나 능력보다는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마음이 짐이 중요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다.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하여 할 수 없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꿈의 사전적 의미에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공상적인 소망」이 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과거에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공상적인 소망들로 가득하다.



탁 승 제 주임교수 / 순환기내과학교실

선인(善仁)이란 노자 도덕경에서 인용한 말로 인을 잘 베푼다는 뜻이다. 의과대학 지하 카페테리아에 있는 선인재(善仁齋)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인생을 논하고 즐기는 장소를 의미한다.



당뇨병 환자 발기부전 숨기지 마세요!

당뇨 환자 완전 발기부전 유병률, 비당뇨 남성의 최대 12배

- 국내 최초로 공인된 당뇨병 환자의 발기부전 유병률 데이터 대한당뇨학회에서 공식 발표 -

추측으로만 난무했던 당뇨와 발기부전의 상관관계에 관한 대규모 역학조사 결과가 국내 처음으로 발표됐다.

이번 역학조사를 주도했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조남한 교수팀에 따르면, 전국 6대 도시(7개 병원) 1,312명의 남성 당뇨병환자와 무작위로 선정한 915명의 비당뇨 남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국내 당뇨병환자 중 25%(4명 중 1명)가 실제로 전혀 발기가 되지 않는 완전 발기부전 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는 비당뇨 남성의 최고 12배에 달하는 것.

연구진은 당뇨 남성환자군과 비당뇨 남성환자군을 가벼운 발기부전, 중등증 발기부전, 완전 발기부전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유병률과 심각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당뇨군과 비당뇨군의 평균 연령은 각각 55.8세, 47.1세이며, 평균 7.3년(최단 1년, 최장 43년) 동안 당뇨를 앓고 있었다.

당뇨환자의 발기부전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당뇨환자군 중 25.8%가 완전 발기부전을, 19.5%가 중등증 발기부전을, 20.3%가 가벼운 발기부전을 보여 절반이 훨씬 넘는 65.6%가 발기부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당뇨 환자군은 완전 발기부전이 4.6%, 중등증 발기부전이 11.7%, 가벼운 발기부전이 18%로 유병률이 당뇨군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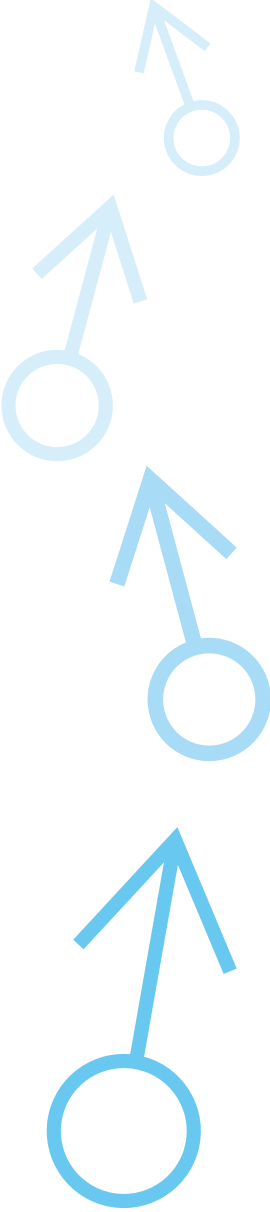
비당뇨 환자군, 당뇨 환자군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발기부전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완전 발기부전 환자군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당뇨군은 ▲ 40~44세 14% ▲ 45~49세 15.1% ▲ 50~54세 21.4% ▲ 55~59세 27.5% ▲ 60~64세 39.9%인 반면, 비당뇨군은 ▲ 40~44세 2.1% ▲ 45~49세 4.3% ▲ 50~54세 5.5% ▲ 55~59세 2.3% ▲ 60~64세 24.1%로 유병률 차이가 심했으며, 특히 55~59세(당뇨군 27.5%, 비당뇨군 2.3%)의 경우 12배 정도나 차이가 났다.

또, 완전 발기부전은 연령과 상관없이 당뇨를 오래 앓을수록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40대의 경우 당뇨를 앓은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완전 발기부전 비율이 1%에 불과하지만, 11년 이상 장기간 당뇨를 앓을 경우 12명 중 1명(8.23%)이 성생활이 불가능한 완전 발기 부전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운동여부, 식생활, 연령, 당뇨병 지속기간, 인슐린 사용, 모세혈관 장애 등 당뇨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을 보정한 비교 위험도 평가에서 당뇨 환자가 완전 발기부전이 될 위험도가 비당뇨 남성에 비해 32.31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조남한 교수는 『이번 조사결과 예상했던 것보다 당뇨 환자들이 당뇨 합병증으로 발기부전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현재 당뇨병환자의 발기부전 치료제가 나와 있는만큼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 남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 11월7일 경주에서 개최된 대한당뇨학회에서 발표됐으며, 국제 당뇨연맹(IDF)에서 포스터로 발표됐다.



소화관 기능 이상의 원인 규명과 치료를 위하여

매 달 발행되는 아주대의료원소식지를 볼 때 가끔씩 나는 언제나 「나의 연구 나의 테마」라는 주제를 논할 수 있게 될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지금까지 발표했던 나의 연구들이 일관된 주제나 목표가 없고 방향성이 없다는 사실이 항상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시기에 해외연수는 일종의 하늘에서 내려온 밭줄과 같은 것이었다. 그 밭줄이 썩은 밭줄이 될지, 좀 더 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튼튼한 밭줄이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내가 평생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연구 테마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일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녹슬고 고장난 부분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들이 지향하는 방향으로만 가던 나의 결정 방식과는 달리 남들이 가지 않는 유럽의 작은 나라 벨기에로 연수지를 선택했고,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소화관의 기능성 질환에 대한 임상연구를 하게 되었다.



▲ 소화관의 기능을 검사하고 있는 장면

소화관의 기능성 질환은 쉽게 말하자면 내시경이나 초음파검사 등으로 특별히 발견되는 기질적인 질환이 없이 소화불량, 속쓰림, 변비, 설사, 복통 등 다양한 복부 증상이 만성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을 통칭하므로 실제로 소화기내과로 내원하는 환자들의 가장 많은 수가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소화기내과를 방문하는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혈액검사, 내시경검사, 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종양, 궤양, 염증성 질환이 있는 지를 먼저 찾게 되지만 실제로는 이런 질환이 없으면서 복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 더 많으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 증상이 발생하는지,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 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듣기가 쉽지 않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 기능성 질환은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으나 최근에는 삶의 질도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연구들이 활성화 되기 시작하였다.

내가 1년 9개월간 연수지에서 하였던 임상연구들은 대부분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원인 규명과 효과적인 치료법의 개발에 대한 것이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군 중에 십이지장의 운동장애로 인해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간 위산의 제거가 지연되면서 십이지장의 산도가 증가해서 소화불량증이 올 수 있다는 새로운 병태생리를 제시하였고, 십이지장의 산도 증가가 위의 운동장애 뿐만 아니라 위의 감각기능을 예민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이어서 이런 십이지장의 운동장애를 유발하는 물질에 대한 연구도 하였다. 최근에 고춧가루의 복용이 소화불량증을 호전시킨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서구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기전을 밝히고 싶어서 고춧가루 성분이 위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해서, 실제로 사람에서 예민해진 위의 감각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규명하기도 하였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서 가슴쓰림이나 신트림을 호소하는 위식도역류질환은 지금까지는 산을 중화하거나 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약만을 사용해 왔으나 근본원인인 역류를 방지하는 약물을 개발하고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 결과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실제로 흔히 접하는 환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연구 테마는 나에게 연구에 대한 부담보다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고 있다. 오늘날 해결되지 않는 만성적인 소화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화관 기능 이상을 규명하고 효과적이고 적합한 치료를 찾아주는 연구들이 고통받는 환자들의 삶의 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광 재 교수 / 소화기내과학교실

말초 혈관 질환 - 갑자기 발생한 동통, 저림, 창백한 피부빛을 보이면 의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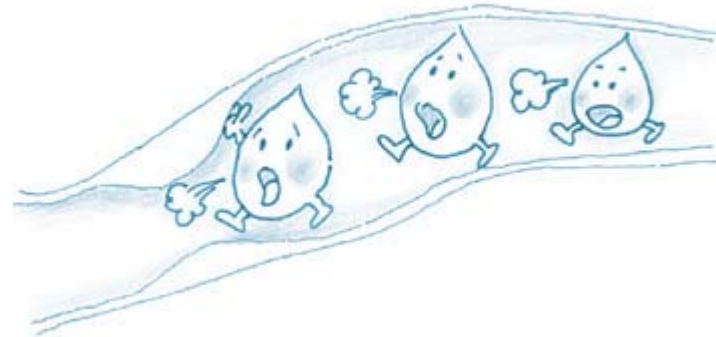
노령화와 당뇨병 환자 증가에 따른 증가 추세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혈액이 분포한다. 심장도 크게 봐서는 온 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하는 하나의 특수한 혈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조직학적으로도 3개의 층으로 구별되어 있는 동 혈관과 심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심장에서 장기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동맥이며 심장에서 대동맥, 주동맥으로 점점 분지되어 각 장기에 말초 혈관의 형태로 분포되어 있다. 동맥은 3개의 층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가운데 근육층은 엘라스틴(elastin)이라는 물질을 함유하여 매우 탄력이 있다.

말초 동맥 질환은 어떤 원인에 의하여 말초 동맥에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폐색을 가져오므로써 해당 말초 동맥이 분포하는 장기의 기능 이상 등의 증상을 초래하거나 완전히 막힌 상태가 오래되었을 경우 장기의 과사를 일으키는 무서운 질환이다. 최근 노령인구와 당뇨병 환자의 증가에 따라 말초 동맥 질환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젊은 연령층에서도 발병

혈관의 노화로 인한 탄력성의 소실과 동맥 경화증에 의한 동맥 경화성 말초 동맥 폐색증이 가장 흔하면서도 최근 환자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젊은 흡연자에서 발생하는 버거씨병은 흡연으로 인해 사지의 끝부분의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작은 색전들로 막히는 병이다. 사회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야 하는 젊은 연령대에 나타나는 질환이며 금연을 제외한 별다른 치료법이 없어 결국 사지를 절단해야 하는 무서운 병이다. 타가야사씨 동맥염 등의 동맥염은 대동맥이나 그 주가지에 주로 생기며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 결과로 막히는 병이다.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는 혈관염은 염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비특이적인 혈관염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밖에 매우 드물게 혈관의 섬유 이형성증 등이 있을 수가 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말초 동맥 질환의 확률은 매우 높으며 당뇨병의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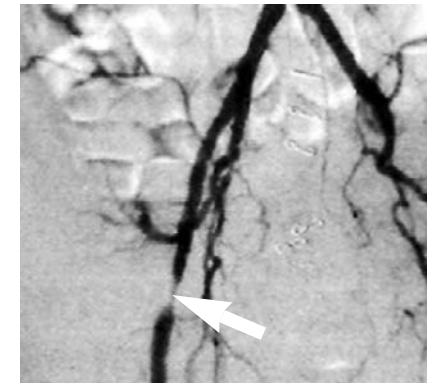
대 합병증의 하나로 말초 혈관 질환이 꼽히고 있다. 심장 판막에 이상이 있거나 부정맥이 있는 경우, 판막 이식 수술을 시행 받은 경우에서 심장 내에서 생긴 혈전이 말초 동맥 폐색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동통, 창백한 피부, 저림 증세가 있으면 의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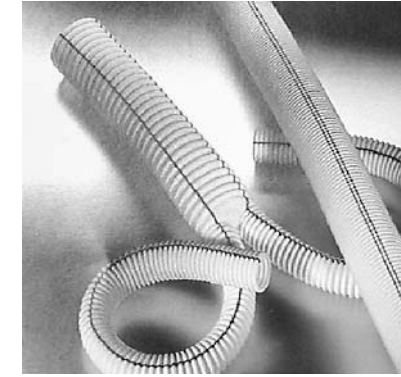
말초 동맥 폐색증의 증상은 흔히 5P로 알려져 있는 5가지의 증상이 대표적이다. 동통(Pain)이 있으면서 그 부위의 맥박 촉지가 없는 경우(Pulselessness), 창백하거나 푸른 빛을 띠는 피부색을 보이는 경우(Palor), 저린 느낌이 있는 경우(Paresthesia), 심하면 마비(Paralysis)가 오는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 한마디로 노인의 연령대 혹은 당뇨병 환자에서 운동을 하면 심해지거나 갑자기 발생한 동통, 또는 창백해진 피부색을 보이는 증세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동맥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흔히 관절이나 근육의 이상으로 생각하여 진단 및 올바른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먼저 말초 동맥의 이상을 반드시 의심하여야 한다. 흔히 운동을 하면 위의 증상이 더 심해지며, 환자에 따라서 동통보다는 사지가 차가워지면서 피부색이 창백하게 변하거나 과량게 변하는 증상이 먼저 나타나기도 한다. 말초 동맥 질환의 경우 실제 환자 중 극히 일부만이 병원에 내원하며 이는 환자 자신의 고정관념과 말초 동맥 질환에 대한 일부 의료진의 인식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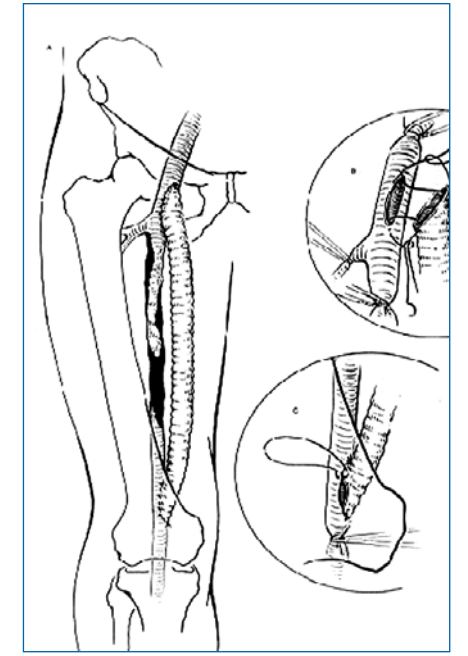
▲ 버거씨병으로 괴사된 발



▲ 혈관 조영 촬영으로 확인된 혈관 막힘



▲ 인공 혈관



▲ 혈관 우회로술

정확한 진단법은 혈관 촬영술

진단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가장 간단하면서도 비침습적인 방법으로는 말초 동맥 초음파를 시행할 수가 있으나 정확한 폐색 부위의 결정에는 무리가 있다.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면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검사는 혈관 촬영술이다. 조영제라는 특수 약품을 사용하여 혈류의 변화를 알 수 있으며 폐색의 부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밖에 CT, MRI 등이 보조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단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심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황금의 시간을 놓치지 말라

말초 동맥 폐색이 생긴 경우 치료는 시각을 다투는 매우 응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급성 폐색증의 경우에는 황금의 시간(Golden Time)인 6~7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가 오히려 과사가 진행된 사지의 독성물질들을 전신으로 퍼지게 하여 심장 마비 등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만들게 되기도 한다. 즉 황금의 시간을 놓친 경우에는 폐색 혈관 부위 이하 부분을 포기하여 절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만성 폐색증의 경우에도 사지 말단부의 과사가 진행되기 전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과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를 해주어도 과사 조직이 재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빠른 진단과 치료는 말초 동맥 질환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약물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항응고제로, 혈전의 형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여 폐색의 진행

을 막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두 번째는 혈관 확장제로 말초혈관의 확장을 야기하여 역시 폐색으로의 진행을 막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약물 치료는 모두 보존적이고 부가적인 치료로 사용되며 오랜 시간동안 복용해야 효과가 나타나고 그 효과 역시 불투명하다. 약물 치료 자체가 주 치료의 의미보다는 보조 치료로 사용된다고 하겠다.

외과적 치료로는 혈류가 좋은 부위로부터 혈류를 끌어와서 공급하는 우회로술이 있다. 혈류가 좋은 반대쪽 사지나 하지의 경우 상지로부터 혈류를 우회시킨다. 심장에서 가까운 대동맥으로부터 혈류를 우회시키는 방법도 있다. 혈류를 우회시키는데 사용되는 도관은 인공혈관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정맥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수술하기에 부적절한 환자의 경우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등이 시도되고 있다. 그밖에 교감 신경 절제술이 있으며 최근에는 병변의 위치와 정도에 따라서 스텐트 등을 삽입하는 비수술적 기법들도 각광 받고 있다.

가슴으로 다가가는 진료와 간호가 있는 NCU



우츠프라 카치아란 결벽증이 강한 식물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식물은 지나가는 생물체가 조금이라도 몸체를 건드리면 그날부터 시름시름 앓아 결국엔 죽고 만다고 한다. 그런데 이 식물이 어제 건드렸던 사람이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건드려 주면 죽지 않는다고 한다. 한 없이 결벽하다는 우츠프라 카치아는 한번 만져준 사람의 애정어린 손길을 기다리는 고독한 식물이기도 하다.

우리의 우츠프라 카치아는 바로 의식 없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삶보다 죽음이 가까운 곳, 그러나 생명을 생명으로 이어주는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줄 수 있는 곳,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는 신경계 문제가 생긴 환자에게 바쁜 움직임으로 여러 가지 감시 장치를 연결하고 환자에게 신속한 조치를 하는 곳,

예민하고 민감한 환자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아니 수십 번씩 의식상태를 파악하는 간호사의 외침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5층 신경계 집중치료실이다.

신경계의 다양한 장애는 즉각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급성기가 지난 후에도 합병증으로 심각한 신경학적 장애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경계의 해부생리에 대한 이해와 응급 상황에 대한 상급 전문 간호지식을 갖춘 간호사의 집중적인 간호를 필요로 하는 곳이다.

NCU는 류은형 수간호사를 비롯하여 6명의 신경외과 전문간호사, 19명의 간호사, 5명의 보조원들이 13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다. 물론 6명의 든든한 신경외과 스텝과 레지던트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손길이 닿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경피적 뇌혈류 속도 측정기, 중앙집중감시장치, 뇌 내압 감시기,

호흡기 등 최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하여 표준화된 의료지침을 적용하며 가치 있는 삶으로의 복귀를 위해 최상의 간호를 제공하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슴으로 다가가는 간호」를 위해, 간호사의 인성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참여하고 싶은 조직·후배에 물려주고 싶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신버팀 직장 만들기」 같은 월례 행사와 신규 간호사가 NCU에 잘 적응하고 유능한 간호사가 되도록 도와주는 경력 간호사들의 「신규 써포터즈」 등 인간미 넘치는 사랑이 있다. 표현하지 못하는 환자의 예민한 변화에 대한 24시간 집중치료가 있는 곳, 이 곳이 바로 5층 NCU다.

※ NCU 미니홈피 <http://www.ncu.cyworld.com>을 방문하면 아주대 학교병원 NCU의 이모저모를 볼 수 있다.

신경외과 조경기 교수가 말하는 NCU



신경계 중환자실은 뇌 및 척수의 신경계에 질병이 있는 중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치료 및 관리하는 곳으로 13 병상에 2대의 최신형 호흡기를 포함한 7대의 호흡기와 뇌압감시장치, 뇌혈류 측정기 등 뇌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는 명실 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중환자실이다.

난 신경계 중환자실을 들어 설 때마다 환자들이 밤새 별일이 없었는지 늘 조바심이 난다. 이들 중환자들은 수시로 신경상태가 변하며 잠시라도 그 순간을 포착 못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환자가 빠져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태가 불안정한 이들을 24시간 독수리의 눈으로 감시하고 위기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신경계 간호사들의 손끝

에서 나의 조바심은 안정을 되찾게 된다. 힘든 일을 기피하는 요즘의 세태에서 이들은 늘 긴장 속에서 살며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기에 이들의 모습이 자랑스럽다. 류은형 수간호사를 중심으로 힘들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많은 일들을 일사분란하게 처리하는 팀워크 역시 최고 수준이며, 이곳에 근무하는 간호사 19명 모두가 신경계 중환자의 간호 뿐 아니라 치료에도 의사와 같이 동참하여 수시로 변하는 환자들의 신경변화를 파악하고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성취목이 충만한 프로 간호사들이기 때문에 더욱 자랑스럽다.



백미원 간호사가 말하는 NCU

조금 더 환자와 있고 싶어하는 보호자들에게 면회시간 종료를 알릴 때 언제나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백미원 간호사는 졸업 후 계속 근무한 NCU가 삶의 터전이 됐다고 말한다.

열심히 간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환자가 흔히 말하는 뇌사상태가 되거나 상태가 나빠질 때가 가장 힘 들고 자책감이 든다. 반면, 가장 기쁠 때는 예상하지 못한 환자의 회복이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는 한달 가량을 NCU에서 손가락만 조금 움직이는 반응만 보였었는데 현재는 부자연스러운 걸음이지만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신 쌍둥이 아버지다. 간호했던 백 간호사를 기억 못하시는 것이 미안하다는 그 분께 서운한 마음보다는 내가 정말 소중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수많은 장비들과 여기 저기에서 울려대는 알람, 환자들의 심음소리, 의료진의 분주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중환자실이 매미란 곳이라고 생각 되겠지만 NCU에는 구성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녹아 있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위안과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는 백미원 간호사는 생명이 위태로운 분들을 간호하다 보면 회의에 빠지는 순간도 있지만 생명의 소중함과 자신이 선택한 이 일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절실히 느낀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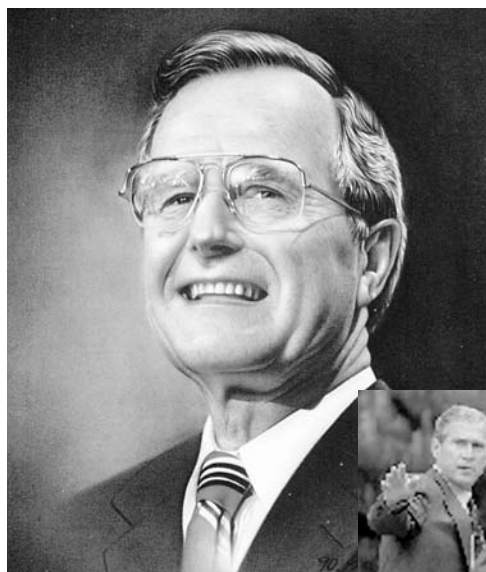
아버지 부시와 갑상선기능항진증

인터넷엔 아주 많은 정보가 있다. 인터넷을 해매던 중 미국의 역대 대통령과 질병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놓은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었다. 작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건강문제가 소문을 타고 일파만 파 퍼질 때 대통령의 건강문제가 공개되는 것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극비 사항이라는 우리 정부의 태도와 비교하면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1991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아버지 부시(전 대통령)는 조깅을 하던 중 갑작스레 숨이 가빠 오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다. 의료진은 비상이 걸렸고 부시가 심장 부정맥(맥박이 불규칙한 상태)으로 인해 증상을 느낀 것이며 원인은 갑상선기능항진증에 동반된 심방세동이었다고 발표하였다.

곧 부시는 베테스다 해군병원으로 후송되었고 Ross라는 심장내과 전문의에 의해 디곡신(맥박을 느리게 하는 약), 프로케인아미드(맥박을 규칙적으로 뛰게 하는 약), 쿠마딘(항응고제)을 처방받았다. 약으로 심방세동이 조절되지 않으면 전기충격요법으로 심방세동을 치료하려 계획했다고 한다. 재미있는 건 전기충격요법을 위해 마취를 하게 되면 유사시를 대비하여 대통령의 임무를 부통령인 덴 퀘일에게 임시 이양할 계획까지 세웠었다고 한다. 수 시간의 공백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미국적인 사고방식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 DJ 전 대통령은 작년 수차례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다. 한국적인 정서로는 대통령이 건강문제로 사망하기 전에는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시는 약을 사용하여 일시적인 부정맥의 호전이 있었으나 다음 날 다시 심방세동이 나타났고 당초 계획되었던 전기충격요법은 하지 않고 약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했다고 한다. 부시는 수주 전부터 피곤함이 심해졌고 4kg 정도의 체중감소가 있었으며 손이 떨려서 글씨를 쓰기가 불편했었다고 하였다. 검진 시 갑상선이 약간 부어 있는 것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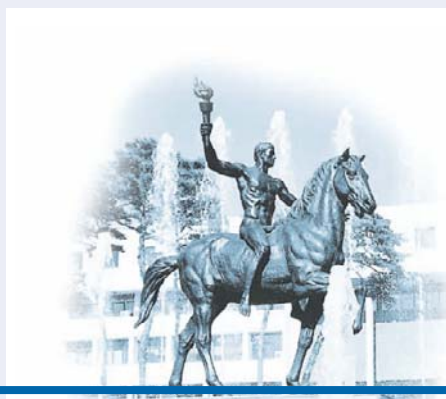
부시와 의료진은 갑상선기능항진증(그레이브스병)을 진단한 후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치료방법을 찾았다고 한다. 참고로 갑상선기능항진증은 약물요법, 수술요법, 방사선요법 등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개 초기치료로 약물요법을 선호하고 있으나 1~2년 정도 치료해도 40% 정도는 완치가 안 되는 단점을 갖고 있다. 반면 방사선요법은 방사선에 대한 거부감 때문인지 30%에서 영구적인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유발될 수 있어서인지 굉장히 꺼려하는 편이다.

부시와 의료진은 결국 방사선요법을 선택했으며 수개월 후 더 이상 갑상선호르몬의 과분비는 없어졌고 반대로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유발되어 평생 갑상선호르몬(신지로이드)을 먹게 되었다.

부시는 「사막의 폭풍」이라는 이라크 침공 작전 직후 역대 대통령으로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고 한다. 하지만 재선이 당연시 되던 1992년 풋내기나 다름없던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에게 참패하였는데, 경제 침체와 내정 실패가 주요 원인이었겠지만 한 작가는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일부 기여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선을 위한 유세과정 동안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갑상선질환과 동반한 우울증이 원인이라는 추측도 있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부인인 바버라 부시가 먼저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진단받은 적이 있었으며, 애완견 밀리도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대중 교수/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미래를 업그레이드하라 꿈을 펼쳐라



- 12
- 13
- 14
- 15
- 16-21
- 16
- 18
- 20

- 의과대학장 인사말 | 희망의 등불이 되어줄 젊음을 초대합니다
- 아주대의대 학생활동 | 나를 발견하고 꿈을 키워갈 대학생할
- 의학부의 특성과 방향 | 명문의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보세요
- 간호학부의 특성과 방향 | 전문인의 출발을 간호학부에서 시작해 보세요
- 24시간 면학분위기, 최신식 시설 | 젊음과 비전이 있는 의학의 전당
- 교환학생 프로그램 체험기 |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다
- 특성화 선택실습 체험기 | 세상은 넓다, 그 세상을 품은 내 가슴 또한 넓다
- 해외 봉사활동 체험기 | 인생의 마지막 여행지인 인도에서 얻은 것

희망의 등불이 되어줄 젊음을 초대합니다



김영수 의과대학장

요즘은 나라가 부동산 투기, 불법 정치자금, 왜곡되고 있는 교육제도, 노사문제 등 너무나 많은 문제로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모든 잡념을 떨치고 최선을 다해 공부에 열중해 온 극소수의 학생들만 의과대학 입학의 문을 두드려 볼 수 있는 것이 세상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수년전부터 우리나라 대학입시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는, 각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그룹의 학생들이 너도나도 의과대학으로 몰리고 있고,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 있는 타분야의 우수인력마저도 다시 세월의 시간을 돌려 의대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이 명백한 터에, 우리 의과대학도 몰려드는 많은 인재들로 그저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서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고민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학장으로서 「우리 의과대학에는 이런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몇가지 적어볼까 합니다.

첫번째로, 감성이 풍부한 학생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소 **醫의 근본은 仁**에서 비롯되며 인성교육이야말로 훌륭한 의사를 배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이웃의 불행과 아픔을 보고 눈물을 글썽거리는 심성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들이 올바른 의술을 익혀 사회에 나간다면 세상이 조금이나마 더 포근해지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겸양의 마음을 갖춘 학생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겸양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려는 학생도 괜찮겠습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공부에만 몰두해온 학생들을 보면 집안에서나 학교에서 대부분 우대 받고 자라온 환경 탓인지 남을 존중하거나 인정하기보다 자기 고집만 내세우다가 공동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환자의 아픔을 잘 헤아리는 의사보다는 환자위에 군림하는 의사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호기심 많은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공헌한 위대한 발견이나 수많은 발명도 지극히 평범하고도 엉뚱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인간생명의 복제까지도 가능하게 한 현대 의학의 발전도 끊임없는 탐구정신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온종일 많은 시간의 강의와 정보를 접하면서도 종전의 이론과 교수의 가르침만 마냥 외우고 따라가는 아무 생각없는 학생들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다보니 욕심이 된 것 같습니다만 이런 학생들이 우리 의과대학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의사가 된다면 점점 더 각박해지고 혼탁해져가는 세상속에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지 않을까요?

나를 발견하고 꿈을 키워갈 대학생활동

대학생활의 활력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동아리 활동이다. 관심분야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활동하며 재능을 키우는 동아리야말로 아름다운 대학생활동의 꽃이며, 성취감을 안겨준다. 의과대학생들이 책벌레라는 말은 옛말이 되어버린지 오래다. 신세대 의학도는 모든 관심분야에서 그 진가를 나타낸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내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학술연구활동 및 의료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의과대학 학생회는 의학부 학생회, 간호학부 학생회, 동아리 연합회, 편집회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에 건의하여 대학 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학생회에서는 신입생에 대한 의과대학 자체 오리엔테이션, 3개 의과대학(아주대, 울산대, 성균관대) 체육대회, 의과대학 축제, 봉사활동 등 학생들을 위한 각종 행사 및 활동을 전개한다.

현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는 13개의 동아리와 8개의 소모임이 있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의과대학 동아리 외에도 아주대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60여개의 동아리와 90여개의 소학회에도 참여 가능하다. 의과대학은 각각의 동아리마다 담당 지도교수를 선임하여 실질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의과대학 지하 1층에 동아리 전용공간을 마련해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Six Lines** : Six Lines는 91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대중음악 동아리로, 다양한 음악을 듣고 연주한다. 매년 3월에 Spring-Live와 10월에 축제공연, 가을 정기공연을 개최한다.

■ **탯줄** : 탯줄은 정기공연, 새내기 축제공연, Work Shop 공연 등 년 3회의 공연을 실시하는 연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연극동아리이다.

■ **CMF** : 한국누가회(CMF Korea)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의 유일한 기독 동아리로, 매주 Chapel 소그룹 성경공부를 실시하고 교내 선교활동 및 의료사회 복음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 **함사랑** : 함사랑은 97년 소금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여 99년 5월 이름을 변경한 봉사 동아리이다. 함사랑은 학생 뿐만 아니라 인턴, 레지던트 등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Papyrus** : Papyrus는 91년 문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여 창단한 독서 동아리로, 독서토론을 통해 유대를 강화해 가고 있다.



■ **ARTISTS** : ARTISTS는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10월 축제시 정기전시회를 개최한다.

■ **ORBIT** : ORBIT는 사진찍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진 동아리이다.

■ **메디콤** : 메디콤은 컴퓨터 공부를 함께하는 컴퓨터 학습모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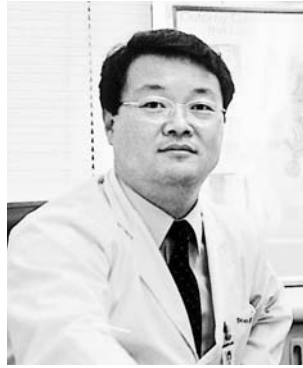
■ **S.O.S(Sounds of Silence)** : S.O.S는 침묵의 소리라는 뜻의 수화 봉사 동아리이다. 1주 1회의 정기모임을 통해 수화를 배우고 봉사활동과 수화발표제를 한다.

■ **아메바** : 아메바는 농구 동아리로, 매주 농구게임을 실시해 건강을 지키고 있다.

■ **Medic Chamber** : 클래식 음악동아리인 Medic Chamber는 악기를 배워 진정한 음악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동아리로, 매년 정기연주회를 열고 있다.

■ **사랑나눔봉사단** : 한달에 한 번 인근 양로원을 방문하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건강체크, 산책, 목욕 봉사,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봉사동아리이다.

명문의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보세요



왕희정 의학부장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은 15년의 역사를 지닌 젊은 대학이다. 우리의 구성원들은 역사를 만들어 나간다는 마음을 갖고 일하고 또 공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성실하고, 좋은 인성을 가진 창의적인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4년 입시의 경우 수시학생을 50% 선발한 의지도 수능시험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기보다 고등학교 생활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의학부의 교육과정은 의학입문과정, 기초의학교육과정 및 임상의학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병원봉사실습을, 교양교육의 일환으로 의학과 예술, 의학입문 세미나, 의학과 윤리 및 의학영어 등의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이를 6년 과정에 고루 배분하여 고학년에서도 윤리 및 덕성 함양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연구하여 학사개편을 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우리 대학의 특징을 함축하여 보면 학생 중심의 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학생정원은 학년별로 40~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수는 전임교수 190명을 포함하여 602명의 교수가 교육에 참여하고 있어 학생의 1:1 지도가 가능하다. 학사지도를 위하여 학장-학생 간담회, 학사기획위원회, 학년지도교수제, 학생지도 및 선발위원회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 생활지도를 위해 담임반지도교수제, 학생상담실, 기숙

사지도위원회, 동아리지도교수제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관심사와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학생회, 동아리 활동 및 학생연구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활성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전체 등록학생의 1/3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고, 전체 학생의 41.5%가 기숙사생활을 하는 등 갖가지 학생복지시설들은 2002년도에 시행된 의과대학 인정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현재 기숙사 및 연구동 증축을 위한 발전기금을 모금하는 중인 바, 내년 중에 기숙사를 증축하여 약 60%의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게 된다.

아주대학교의 월드 클래스 유니버시티 및 글로벌 캠퍼스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금년에 시작된 미국 의과대학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내년에도 확대 운영 여부를 논의 중에 있다. 금년에 4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2개월간 미국 스토니브룩 의대와 플로리다 의대로 두 명씩 학생을 보내고 두 명의 학생을 정신과와 이비인후과에서 받아 교육을 받게한 결과 양자 모두 매우 만족한 결과를 얻었다. 내년에는 6학년 학생 6명을 선발하여 교환학생으로 보낼 예정이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율선택실습기간의 확대가 절실한바, 향후 미국과 같이 6학년에 실시하고 있는 실습을 국내 및 국외의 타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전문인의 출발을 간호학부에서 시작해 보세요



박지원 간호학부장

아주대학교 간호학부는 인간존중(人間尊重), 실사구시(實事求是), 세계일가(世界一家)를 추구하는 아주대학교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교양과목과 기초과목 그리고 전공과목으로 구분하여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1, 2학년 과정에서는 교양과목과 간호기초과목 과목을 학습하여 간호에 필요한 인성과 학문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있으며 사회에 나가 전문인의 특권을 남용치 않도록 봉사실습제도를 도입하여 겸손한 마음과 봉사정신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위해 인문, 사회, 언어, 컴퓨터 등의 과목을, 전공과목의 이론과 실기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초의학과목 그리고 기본적인 간호방법을 실험실에서 실습하는 기본간호학을 배우게 된다.

이어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통해 간호사로서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상급학년으로 진급한 후 3, 4학년 과정에서는 전공과목을 임상실습과 병행하여 교육함으로써 강의실에서 배운 것을 현장에 접목해 보는 실용적인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주대학교병원 곳곳을 간호학생의 실습 장소로 활용하여, 교수가 직접 임상에 나가 실습을 지도하고 있으며, 인턴쉽 제도와 선택 실습 제도를 도입하여 현장 적응 능력을 높이는 실무형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그 결과 아주대학교병원으로의 취업률 100%를 초과하고 여러 기관에 합격한 학생이 속출하고 있어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이때 우리 졸업생들은 어느 기관으로 취업할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또한 학생중심 대학으로서의 특성을 살려 인간, 환경, 건강, 간호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창조적으로 실천하는 전문적 능력을 갖춘 간호사를 육성하고자 전

교수가 참여하여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에 대해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연구능력을 함양시키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3년 연속 전국 대학생 학술 연구발표대회에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에 우리 학생들은 간호학부 교수진은 물론 의학부 교수진의 열의에 찬 교육에 보답이라도 하듯 간호사 국가고시에 연속 100% 합격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수석까지 차지하는 쾌거를 올려 명실공히 아주대학이 우수한 대학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40명 정원의 가족적 분위기와 기숙사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의무는 아니지만 4학년이 되면 가급적 기숙사에 들어오도록 권유하여 선배와 후배간에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을 배우도록 하고 있으며 짝 선배를 통해 부족한 학업과 학교생활에 길라잡이가 되어 적응력을 높여 주고 있다.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학기 중에 20학점의 교직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면 보건교사 자격증을, 방학기간을 이용한 4주간의 보육기관 실습을 추가하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졸업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 본 학부의 4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함과 동시에 일반간호사, 보건교사, 보육교사, 산업체 의무요원, 보건계통 공무원, 의료 관련 연구원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특히 2003년 10월에 10개 분야의 전문간호사 제도가 고시됨을 계기로 앞으로 간호학생의 졸업후 진로방향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젊음과 비전이 있는 의학의 전당,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힘겹게 치른 수능시험. 이제 원하는 대학교와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큰 과제가 남아있다. 의료인이 되기 위한 마음의 결정이 섰다면 주저 없이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을 선택하자. 복지혜택과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미래성 등 모든 조건이 고루 갖추어진 곳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의과대학 신입생 4명중 3명이 장학생!

아주대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탁월하다. 우선 장학금 수혜현황이 우수하다는 것이 큰 매력을 끈다. 그중 의과대학 재학생은 입학성적에 따라 60% 이상이 입학 및 등록금 전액 면제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자체 장학금 조성을 위해 기성회 기금, 동창회 모금, 관련업체 지원 획득을 계획하고 있으며, 교수연구비 중 교수연구 참여학생에게 일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교환학생 프로그램 체험기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다

뉴욕으로 가는 날, 비행기 안에서 일기장에 이런 문장을 썼었다. **NY** 「열심히 지내자. 재미있게, 즐겁게. 자유의 상징이라는 미국에 가서 내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오자. 미국이 어떤 곳인지를 온몸으로 느껴보고 싶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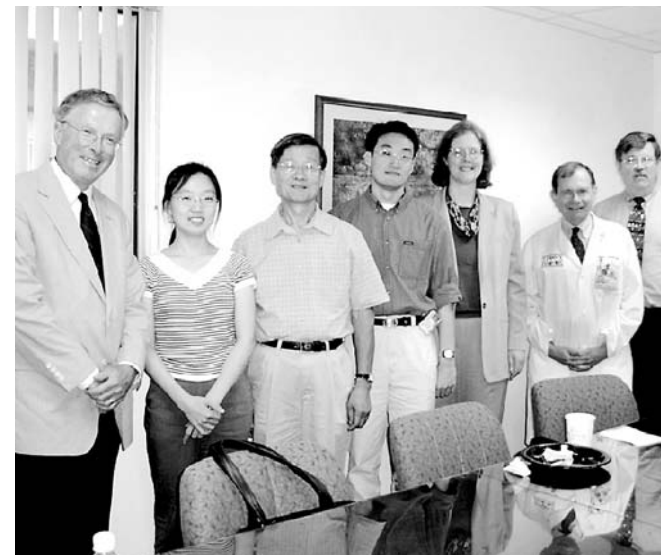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학은 올해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Dr. Lauterbur가 MRI를 발명한 곳으로, 롱아일랜드 섬의 중앙에 위치하여 학교 주변이 온통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올해 초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학으로 가기로 결정된 후, 이번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그쪽의 담당자들과 끊임없는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준비한 우여곡절 끝의 미국 행이었다. 그 준비과정에서 스토니브룩 측에서는 의료에 관한 법적인 문제들로 인해 외국인인 우리가 환자를 직접 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다양한 강의와 실습으로 구성된 「응급의학선택강의(Advanced Emergency Medicine Course)」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도착하자마자 시험부터 보기 시작하며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가 참여하게 된 응급의학선택강의는 약 4주간에 걸쳐 응급의학과에 관심이 있는 4학년 학생 10명 및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1년차 8명과 함께 한 프로그램이었다. 강의 시간에 거침없이 질문하고 토론하는 미국 학생들의 자유롭고 적극적인 태도도 무척 인상

적이었고, 특히 강의를 맡은 교수님들의 철저한 준비성은 우리를 감탄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흔히 비판하는 「주입식 강의」가 아닌, 실제로 응급실에서 접하는 환자 케이스를 토대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런 환자가 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토론하는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산 지식을 흡수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강의 외에도 마취시킨 개에 흉관을 삽입하거나 서로를 실습대상으로 삼아 초음파를 시행하거나 후두경으로 들여다보는 등의 실습은 그날 배운 강의 내용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매주 보았던 시험들 역시 환자 케이스를 중심으로 어떤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할 것인지 「모두 서술」하는 방식이어서, 시험 볼 때마다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느라 고생을 했다.

응급의학 강의를 끝난 후에는 2주 동안 한국과 미국의 의료를 비교하는 리포트를 작성하느라 바빴다. 부족한 자료를 토대로 8페이지 분량의 영문 리포트를 쓰느라 무척 애를 먹었는데, 양국의 의학교육이나 의료체계에 관하여 내 의견을 정리하면서, 한편으로는 정작 한국에 있을 때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우리의 의료현실에 관해 고민을 해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또한 이번 뉴욕행이 처음 미국 땅을 밟게 해준 기회였기에 주말과 마지막 한 주 방학을 이용하여 뉴욕 주변을 탐나는 대로 여행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칠 무렵 마련된 오찬회에서. (정유리 학생은 지난 7월5일부터 8월16일까지 미국 스토니브룩 주립대 대학병원에서 교환학생 자격으로 현장실습을 했다. 왼쪽부터 뉴욕 스토니브룩 주립대 사무총장, 정유리 학생, 한국학과 박성배 교수,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했던 나현욱 학생, International Services의 총책임자인 Dr. Barnum, 의대학장 Dr. Edelman, 프로그램 총 책임자인 부학장 Dr. Williams)

뉴욕으로 향한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나 「친구」가 된 Dr. Zsabo (한 의과대학에서 조직학과 해부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셨다) 덕분에 그분 댁에서 하루 머물면서 롱아일랜드를 드라이브 하기도 하고, 미국 기준으로는 비교적 가까이 있는 보스턴과 나이아가라 폭포도 관광할 수 있었다. 물론 「오페라의 유령」 같은 브로드웨이 뮤지컬들을 본 것과 한국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겪은 「미동부 대정전 사태」도 빼놓을 수 없는 추억이다. 물론 하루 하루가 추억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다.

그 동안 적극적인 미국 의과대학생들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물 안 개구리」로 매너리즘에 빠져 학교를 다닌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반성하게 되었다. 두 달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우리가 단순히 「참관」한 것이 아니라 「참여」한 생활이었기에 그런 생각이 더욱 절실하게 가슴에 와 닿았던 것 같다.

교환학생으로 뉴욕에 다녀오면서 고마운 분들이 너무나 많지만, 이 자리를 빌어 다른 의과대학에는 없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한 많은 도움을 주신 아주대와 스토니브룩의 여러 선생님들께 특히 감사 드린다.

정 유 리 / 의학부 6년



좋은 시설, 쾌적한 환경

지방출신 학생과 성적우수자를 선발하여 제공하고 있는 기숙사 입사는 많은 학생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다. 별관 3, 4층에 위치한 쾌적한 환경의 기숙사는 의대의 교과과정 특성을 살려 24시간 개방되어 있으며, 목욕실, 세탁장과 각실의 전화기는 물론 개인당 인터넷 전용선을 갖추는 등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어 좋은 환경 속에서 면학에 정진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놓았다. 또한 총 330평 규모에 116석의 자료 열람석을 갖춘 의학문헌정보센터는 2만여 권의 의학도서를 갖추고 있다. 특히 완전 개가식으로 운영되고, 1,200여종에 달하는 최신 국내의 학술지가 정기구독되고 있으며, CD-ROM 문헌검색실, 인터넷을 통해 해외정보 습득을 위한 LAN 망이 완비된 PC실을 갖추고 있다. 송재관(의과대학) 지하에 위치한 최신식 카페테리아인 「선인재」는 집에서와 같은 식단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



US. Army 18th MED COM 121st General Hospital 특성화 선택실습 체험기

세상은 넓다, 그 세상을 품을 내 가슴 또한 넓다

내가 스스로 택한 곳에서, 내가 원하고, 보고자 하는 실습을 했던 4주간의 선택 실습을 끝내며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2년 동안 우리 병원 같은 훌륭한 병원에서 실습했지만 그 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 뭔가 새로움을 찾기 위해 외부 병원으로 나가고 싶었고 의료 선진국의 의료 체계나 진단, 치료 과정, 환자와의 관계 등을 보기 위해 외국계 병원에 가고 싶었다.

이 실습은 선진 의료를 체험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나에게 실용의학 영어를 깨우친다는 중요한 목적도 있어서 되도록이면 영어를 많이 쓰는 정신과와 내과를 선택하게 되었다. 우연히도 선택 실습기간 동안 우리 가족들이 여행을 떠나서 친구를 만나지 않으면 하루종일 영어만 듣고 말하는 날이 많았는데, 말을 빨리하는 흑인 환자의 말은 랩을 듣는 것 같았다.

내과는 주로 외래 환자를 많이 보고 단순 질환 입원환자는 보지만 심각한 환자들은 하와이 병원이나 본토로 보내지기 때문에 아침 회진은 없었다. 한국 병원과 미국 병원의 가장 큰 차이는 환자를 진료하는 시간이다. 이런 결과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겠지만 환자 1명당 30분 이상의 진료 시간이 배정되어 있었다. 시간이 길어서 그런지 의사는 환자와 의학적인 질문 뿐만 아니라 최근 근황이나 시사적인 얘기,

앞으로의 군생활 계획 등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환자도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에 익숙해 있었다. 또 환자 한 명 한 명당 신체 검사도 세심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부러웠다.

당황스러웠던 것은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 앞에서 환자의 진단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여러 책들도 뒤져보고 진단, 치료기준을 확인하면서 심지어는 나에게 치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었다. 그런 것을 보고도 환자는 의사를 불신하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지 않았다. 참으로 의사와 환자의 신뢰가 두터운 것 같았다. 젊은 나이인데도 만성 질환이 많았고, 대부분이 군인인데도 복부 비만을 가지고 있었다. 흥미로웠던 것은 노인이나 청·장년층 환자들이 자기 몸 상태에 대해서 매일 스스로 확인하고 있었고 자신의 치료 과정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한다는 것이었다. 의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단, 치료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바람직한 환자의 상으로 보였다.

병원 구내식당의 대부분의 음식들이 지방, 당질 덩어리였다. 「이런 음식을 매일 먹으면서 한편으로는 질환을 고치기 위해 병원에 온다니, 나로서는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밀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고.

입원환자는 대부분 간단한 감염 환자거나 미국으로 보내기 위해 대

기하는 환자였다. 어떤 환자는 불명열로, 진단이 아직 안된 환자였는데 최근 강원도에서 훈련 받다 와서 쓰쓰가무시병 의심 하에 신체 검사를 하였다. 그런데 미국 의사는 쓰쓰가무시병을 한번도 보지 못했다고 나보고 신체 검사를 해달라고 해서 내가 그 군인의 온 몸을 뒤졌다. 결국 의심되는 피부 병변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나의 존재감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2주 동안의 기간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손기술은 우리 나라 사람들이 나아보였다.

셋째 주부터는 정신과를 돌게 되었다. 정신과는 크게 외래, 입원과 알코올, 화병 등의 여러 가지 치료가 주를 이루었다. 정신과 외래에서는 대부분 환자들이 고향,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새롭게 군 생활을 시작해 입대하지 2년 미만의 군인들이 적응 장애로 찾아온 환자였다. 그곳에서 보는 군인들은 부유한 미국이 아닌 거대함에 가려진 미국의 그늘 같았다. 어려서부터 빈민지역에서 마약과 술을 시작했던 사람이 새 출발한다고 군대에 들어와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현지인들과 금방 결혼하고 이혼하는 등 대부분이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 보는 외국인인 내가 옆에 있는대도 의대 교육과정을 이해해 주면서 나에게도 자신의 처지를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고마울 따름이었다.

아동 환자들 중에는 한국계 혼혈아들이 많았는데 이 아이들의 불만은 다른 부모와는 달리 한국인인 엄마가 자신을 때린다는 것이었다. 서양에서는 조금이라도 자식을 때리면 아동 학대로 구속된다고 했다. 한국 어머니와 혼혈 자식간에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가족 치료를 해주는 것이 의사의 몫이었다.

그림 치료 모임에서는 사회사업가들이 모임을 이끌어 나가면서 환자들이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지,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하고, 자신의 스트레스 원인을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모임이었다. 환자들이 너무나 능동적이어서 우울증에 걸렸다고 말하는 사람조차 사람들과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다.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다. 이런 환자들의 적극성으로 의사나 사회사업가들은 환자 상태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었고 치료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잡아 나갔다.

4주간 하루 하루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서 이곳으로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고, 선택 실습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스타일도 알게 되었다. 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경험이 앞으로 의사 생활을 하는데 많은 지표가 되줄 것이라 믿으며, 한 개인으로서도 많은 추억과 생각을 갖게 한 시간이었다.

끝으로 이번 실습을 가능하게 해주신 최병일 교수님, 김영수 의과대학장님, 왕희정 의학부장님, 교학팀 선생님들과 121st General Hospital의 Dr. chung, Dr Lee, Colonel Wilson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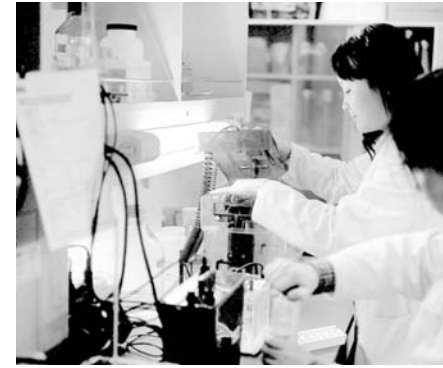
방재순 / 의학부 6년



평범한 의료인보다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곳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들에게는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 의사, 기초과학적 차원에서 의학의 본질을 연구하는 의과학자 또는 보건행정가 등의 길이 있다. 아주대의대는 타 대학보다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졸업후 본인의 사에 따라 최첨단의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칠 수 있고, 뇌질환연구센터, 의과학연구소, 만성염증질환연구센터, 간 및 소화기 유전체 연구센터, 임상역학센터 등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는 등 졸업후 선택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여 그만큼 향후 진로가 무한하다.

뇌질환연구센터, 의과학연구소, 만성염증질환연구센터, 간 및 소화기 유전체 연구센터, 임상역학센터는 평준화 된 의사배출이 아닌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연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주대의대의 연구수준을 대변해 주고 있다. 또한 대학원 의학과는 의학지식 및 생명과학 지식을 의학인 및 자연과학도로 하여금 습득케하며, 의학발전의 기본이 되는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의학자로 양성하고 있다. 특히 대학원 의학과는 의학사 이외의 학사 출신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생



물, 생명, 약학 등 의학연구를 폭넓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간호학부 학생들은 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춘 아주대학교병원과 기타 부설기관, 보건소, 양호실에서 현장실습을 하면서 다양한 간호방법을 학습하여 국내 최고의 전문 간호사로 양성된다. 간호학부 학생들은 졸업 후 아



주대학교병원에 취업하는 특혜를 받게 되며, 1년간의 전문분야별 추가교육을 이수하면 보건진료원, 가정간호사, 마취간호사, 정신보건전문간호사 등의 전문가로 진출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체의 의무요원, 일반간호장교, 의료보험연합회, 스튜어디스로 진출할 수 있다. 특히 의학과와 함께 의과대



학에 소속되어 있어 다양한 학생 활동을 의학부 학생들과 함께함으로써 졸업 후 의사와 간호사의 파트너십을 대학에서부터 배우게 된다. 대학원 간호학과 또한 간호학 발전의 기본이 되는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자로 양성하고 있다.



해외 봉사활동 체험기

「인생의 마지막 여행지」인 인도에서 얻은 것

인도! 「인생에서 마지막 여행지를 택하라고 한다면 인도를 선택하라」라는 말을 들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막연히 동경해 오던 곳. 언제 한번은 꼭 가보리라 맘은 항상 있었지만 갈 엄두가 안 나던 찰나 학교 게시판에 「한국 대학생 해외 봉사활동 모집」 공고가 눈에 띄었다. 「여행하면서 시야도 넓히고 이왕이면 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힘이 되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선택지를 냈다. 다행히 학교측의 배려와 의료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난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인도로 3주간 해외봉사활동을 떠나게 되었다. 설레는 맘으로 먼저 도착한 곳은 인도의 북동쪽 부다가야 근처 동게스와리라는 곳이었다. 이곳은 카스트 제도에도 끼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환경이 아주 열악했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각 마을을 돌며 매일 1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진료하면서 모두들 지쳐갔지만, 진료를 받은 후 고마운 눈빛으로 「나마스떼」를 외치는 그들을 보면 어느새 힘이 불끈 솟곤 했다. 꼬마들은 상처에 드레싱을 해주고 반창고를 붙여주면 언제 아팠다는 듯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시스터~」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녔다. 그런 정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난 정말 삶의 행복이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구나, 「도움을 주려고 왔는데 오히려 가르침을 받고 가는구나」라는 생각에 봉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 볼 수 있었다.

동게스와리에서 2주를 보내고 나머지 1주는 부다가야(불교 성지), 캄카타, 갠지스 강 둘러보기, 인도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간의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내 짧은 날의 소중한 추억들 ... 내 맘속 한 칸에 고이 담아 힘들 때마다 꺼내보면서 미소 짓게 만드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2003년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낸 것 같아 뿌듯하다 ^^.

이번 인도 봉사활동을 통해 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먼저 대한민국 안 개구리에서 탈피한 것에 어느 정도 성공했고^^ ,적



어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수 많은 기회의 문이 열려있는 이 사회에 태어난 것에,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감사할 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난 대학생은 선택 받은(?) 사람들로서 항상 사회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정부분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난 이번에 그 중 한 방법으로 봉사를 택했고 3주후 그 선택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비록 내가 보잘 것 없지만 이조차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고 또 그를 통해 나 자신도 키워 나가는데는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번 봉사를 통해 앞으로 내가 걸어 나갈 길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또래 대학생들과의 만남, 그 인연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건진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다. 이 정도면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내년 여름 한번 도전해 보지 않을까요?

황은 / 의학부 3년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엄마, 나한테 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보면 3~4세쯤 되 보이는 아이의 말에 『왜?』라고 물으면 『엄마가 힘들잖아요』라고 답한다. 여섯 살 나이에 이미 철이 들어버린 아이.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흔히들 이야기한다. 이녀석이 단지 사랑스럽기만 한 자식이었다면 하고 놀 바꿨다. 하지만 늘 내겐 가슴 시리도록 안쓰러운 자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늘 죄스러웠다. 태어나면서 병원을 전전하며 혈관이 없어 목에서 머리에서 채혈하며 간들어가



▲ 좌로부터 외과 오창권 교수, 연선이와 모친, 김지혜 장기이식코디네이터, 소아과 배기수 교수

게 넘어가는 울음소리는 아직도 가슴에 응어려져 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은 지금도 연선이가 울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만큼 순간적인 절망에 빠지고 만다.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부터 알 수 없는 희귀병이라 입·퇴원을 거듭하며 신장 조직검사까지 시행했지만 결과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머리카락도 근육도 없고 피부도 참으로 험했다. 어느 누구도 녀석이 지금까지 살아 주리라 감히 기대치 못했다. 그러나 녀석은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체중의 변화도 거의 없이 자라지 않는 불사신 같은 요정이었다.

병원을 가봐야 한다는 건 알았으나 어떤 진단 결과가 나올지 몸서리치게 두려웠다. 4살이 되면서 말도 하고 조금씩 걷기도 하며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관찰을 거야』란 위안과 경제적 여건 속에서 병원에 가는 걸을 차일피일 미루던 중 동생이 태어나는 걸 시기라도 하듯 감기가 폐렴으로 전이되어 불사신이란 믿음을 주던 아이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았다. 너무 쉽게 넘어지고, 숨소리도 가쁘고, 잦은 코피에 급기야 아침에 흘린 코피가 점심때가 다 되도록 맞지 않아 다시금 병원을 찾게 되었다. 그때서야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내가 아는 신부전증은 일주일에 몇 차례 녹초가 되는 투석과 물조차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병으로 알고 있다. 또 한번 혼란스럽고 두렵고 주저앉고 싶었다. 언제처럼 아이 아빠가 힘이 되주었다. 더 이상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만 해 보자고, 적어도 후회

할 일만은 만들지 말자며 우리는 급하게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오게 되었고 복막투석이란 방법을 있음을 알게 되었다. 수술 후 입원비를 걱정하는 것을 아시고 소아과 배기수 교수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 사회사업팀을 통해 국가복지정책을 이용하여 향후 치료까지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배에 관이 심어져 있어 불편하긴 했으나 만족하며 2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2003년 10월5일 뇌사자의 신장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외과 오창권 교수님을 뵈게 되었다. 조직이 좀 맞지 않고 뇌사자의 장기라 다소 미약할 수 있다는 등 실패할 것에 대한 우려와 이식의 여부를 물으셨다. 짧은 순간 많은 것들이 스쳐지나갔다. 실패, 녹초가 될 어린 녀석, 가장 현실적인 경제적 여건, 지금도 너무 감사하게 살았는데... 하는 안주의식 등

4시간의 수술을 마친 후 선생님께선 성공적이라 말씀하셨고 우린 그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좀처럼 먹이기가 힘들었던 아이가 먹고 싶어 하고 소변도 가리고 요독 수치가 낮아지고 녀석이 대견하고 꿈이 아닐까 싶었다.

물론 애써주신 선생님께 너무 감사했고 경제적인 면을 비롯해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 마음 써 주시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다. 어떻게 그분들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런지 아이 아빠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내 아이에게 새 생명을 주신 아주대학교병원 기동에 절이라도 하고 싶다고, 이곳을 통해 무거운 짐을 나누어 들어주고자 하는 사람이 세상엔 이렇게 많다는 것을 느꼈다.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면 꼭 치료 받기를 권하고 싶다. 병원 내에도 사회사업팀이란 복지기관이 있어 어려운 사람들이 믿고 일어설 수 있는 주춧돌이 되어 준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그분들께 작게나마 보답하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하며 연선이로 인해 인연을 맺게 된 이 병원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에 사는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느끼고 싶다.

신 광 미 님

제 몸을 나누어 또 다른 생명을 만드는 장기기증은 세상의 가장 값진 사랑입니다. 가슴시리도록 고귀한 이 사랑을 베푸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장기이식 TFT ·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문의전화 031-219-5547 | 016-9277-5376

의료원 ▶▶▶

김찬 교수, 新베스트닥터 「통증치료」 1위에 선정

통증 방치면 평생 '고질병'

베스트닥터의 건강학

(27) 통증 치료

아주대병원 김찬 교수

아주대학병원 김찬 교수는 1999년 미얀마 수도 내로버서 통증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수술 후 통증을 치료해 주는 보초로입에 시술을 하였다. 김 교수는 현재 통증클리닉을 만든 것은 일본의 유명한 통증클리닉에 있는 김치현(Chiharu Kimura) 교수에게서 배웠다. 김 교수는 통증클리닉을 운영하며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열정을 계속적으로 품고 있다. 김 교수는 '통증은 우리 몸 치료가 어려운 질환 중 하나'라고 말한다.

만성통증에 진통제 임시방편은 금물
다한증·3차신경통 등 수술이 효과적

신경통증클리닉 김찬 교수가 지난 11월3일자 동아일보 건강면 新베스트닥터의 건강학, 「통증치료」 명의 1위에 선정됐다. 김찬 교수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수술실이 라는 공간에서 벗어나 신경통증클리닉이란 별도의 분야로 개업할 수 있도록 개척한 선구자적 임상의로, 많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번에 1위에 선정됐다.

동아일보 新베스트닥터의 건강학은 각 질환별의 의사들이 직접 뽑은 명의들을 소개하는 코너로, 1위에 선정된 의사는 진료하는 주된 질병, 치료법, 진료철학 등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다.

김찬 교수는 여러 질환 중 삼차 신경통, 다한증, 대상포진 등 다양한 통증질환을 신경괴괴술, 교감신경과괴술, 신경치료 등으로 부작용 없이 90% 이상 치료하고 있다. 김찬 교수는 지난 10년간 삼차신경통에서 알코올을 이용한 신경차단술 1000건 성공, 다한증 교감신경차단술 1100건 성공하여 「세계 최다」라는 피리표를 달기 시작했다.

김호철 의료원장,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부회장 선임

김호철 의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지난 11월6일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임시총회에서 보협담당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는 새 회장단을 선임하는 한편, 각 부회장 산하에 경영, 보험, 노사위원회를 두고 각 부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담당 부회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개원 1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발기모임 가져

의료원 개원 1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조직된 「의료원 개원 1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 「비전위원회」, 「기념사업 실무위원회」와 각 소위원회의 위원이 지난 11월5일 오후 5시 송재관 2층 회의실에서 발기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개원 1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배경, 추진조직, 위원회의 역할과 추진일정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편, 의료원은 개원 10주년 기념사업 추진 및 비전 수립을 위해 지난 11월27일 별관 대강당에서 공개강좌를 실시했다. 이날 교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갈렙 앤 컴퍼니 박기성 대표가 「생존과 성장의 길」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교직원 단기 해외연수 실시

의료원은 교직원 단기 해외연수를 오는 12월8일부터 13일까지 5박6일간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개원 9주년 기념 포상 교직원 10명과 인솔 책임자 등 총 12명으로 일본 도카이 대학병원, 기타사포 대학병원, 지케이 대학병원, 쥘텐도 우리아마 병원 등을 견학하여 선진병원의 환자서비스를 벤치마킹하고 연수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제1회 CEO 워크숍 개최

제1회 의료원 CEO 워크숍이 김효철 의무부총장을 포함한 기관장 9명이 참여한 가운데 11월1일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03년 상반기 의료원 경영실적 보고 및 2004년도 경영여건 분석에 대한 발표에 이어 의료원 주요 협의사항에 대해 집중 토의했다.
의료원은 향후 의료원 CEO 워크숍을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의과대학 ▶▶▶



신임 간호학부장에 박지원 교수 임명

아주대학교는 11월1일자로 의과대학 간호학부장에 박지원 교수를 임명했다.
신임 박지원 간호학부장은 1976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강사, 연세의료원 수간호사로 봉직했으며, 지난 1993년 아주대학교의료원으로 자리를 옮겨 간호행정교육팀장, 인력교육팀장을 역임했다.
현재 박지원 간호학부장은 아주의대 간호학부 교수 및 대학원 간호학과 주임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서창희 교수, 분취의학상 젊은 의학자상 수상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학교실 서창희 교수가 지난 10월27일 제13회 분취의학상 「젊은 의학자상」에 선정되어 26일 오후 6시 신라호텔 다이내스티룸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상패와 부상을 받았다.
서창희 교수는 「관절염을 동반한 베체트병 환자의 활막조직에서 B림프구의 클론성 팽창」이라는 연구로 학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대한의학회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공동 주관하는 분취의학상은 구한말 한국에서 활동한 최초의 독일인 의사이자 고종황제의 시의(侍醫, 주치의)로 한국에 서양의학 전파하고 근대적인 보건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한 리하르트 분취 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90년 제정된 상이다.



의학부 안성민 학생, 2004 호주정부초청장학금 수혜

최근 의과대학 의학부 6년 안성민 학생이 2004 호주정부초청장학금(Australia Asia Award) 수혜자로 선정됐다.
호주정부초청장학금은 호주정부가 고급 연구과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하여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에서 나라당 1명씩 선발하여 지원하는 장학제로, 학비와 생활비, 의료보험비 및 연구목적의 여행경비를 비롯해 연구과정에 필요한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안성민 학생은 호주 멜번대학의 루드비히 암연구소에서 단백질학 기법을 이용해 대장·직장암의 혈청학적 표지자 및 대장·직장암 특이적 막단백질을 찾는 연구를 수행하게 되며 3년 동안 총 16만 호주달러를 지급받게 된다.
호주와 영국, 미국 등 총 10개의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루드비히 암연구소는 암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와 연구업적을 자랑하는 연구 네트워크이며, 멜번의 연구소는 단백질학과 혈액세포 관련 연구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는 곳이다. 21세기 바이오테크 시대를 맞은 지금 색다른 도약이 청년기에 접어든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 미래에 또 하나의 새로운 비전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각종 학술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아주대학교의료원

성형외과학교실 정재호 교수가 지난 11월13일 개최된 2003년도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사람 귀 연골 세포주와 조직공학술을 이용한 신생 연골의 재생」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학술상을 수상했으며, 순환기내과학교실 최소연 교수가 지난 10월10일 대한순환기내과학회에서 「관동맥 분지병변에서 스텐트 시술 후 분지폐쇄 발생의 예측인자」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또한 피부과학교실 강희영 교수가 지난 10월22,23일 열린 제55차 대한피부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최우수 포스터로 선정된 논문은 「Expression and function of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in human melanocytes」로, British journal of dermatology 2004에 게재될 예정이다.
생화학교실 류민숙, 홍봉욱, 윤영실, 김수정, 백철민 대학원생이 지난 10월29일, 3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암과 노화」에 관한 내용으로 우수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총 277개의 포스터가 참가하였으며 엄중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27개의 상 중 5개의 우수포스터 발표상을 아주대의대 생화학교실에서 차지하여 우수한 연구활동 실력을 보였다.
한편, 산부인과 유승철, 변영지 레지던트가 양정인, 김행수 교수 지도하에 지난 11월14일 가톨릭대 의대 대강당에서 개최된 대한주산의학회에서 「자간전증 임신부의 태반조직에서 Nuclear factor-κB의 발현」이라는 논문으로 학술상을 수상했다.

인터넷 다음카페 「종이시계」, 수술비 200만원 지원

다음카페 봉사 동호회 「종이시계」가 신경외과 수술을 받은 환자(남, 10개월)에게 수술비 200만원을 지원했으며, 병실을 직접 방문해 보호자를 위로했다.
1만 명 이상이 등록되어 각 지부별로 왕성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종이시계」는 매일 3천원부터 1만원까지 자율적으로 회비를 모아 지원금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직접 방문해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환자는 수술 후 회복되어 지난 11월 14일 퇴원했다.

간호학부, 전국대학생 학술연구발표대회 수상

간호학부 4학년 2개팀이 지난 11월8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제28회 전국 대학생 학술 연구발표대회 의치약학분야에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차지했다.

강은경, 박연균, 신미현, 윤미정, 하미숙 학생조는 「일개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실태와 정신건강과의 관계」란 논문으로 우수상을 받았으며, 김미연, 박진, 최수경, 한아름, 현수빈 학생조가 「일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건강상태간의 관계」의 논문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병원 ▶▶▶



MRI 1호기 업그레이드, 예약대기일수 단축

병원은 MRI 예약대기 일수를 단축하고 영상 이미지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해 1994년에 설치한 MRI 1호기의 업그레이드를 시행하기로 했다.

MRI 1호기가 업그레이드 되면, 이미지 해상도가 더욱 좋아지고, 다양한 검사기능이 추가될 뿐만 아니라 50분 정도 소요되던 1인 평균 검사 시간이 30분으로 단축되어 1일 최대 검사가능 환자가 17명에서 23명으로 증가, 예약대기일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그레이드는 지난 11월24일부터 오는 12월13일까지며, MRI 2호기만 운영되는 3주간 검사 정체를 막기 위해 MRI실은 기존보다 2시간 연장 근무하여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익일 1시까지 토·일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응급환자의 경우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소방의 날 기념, 우수 소방기관에 선정



병원은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방의 날을 기념하여 지난 11월10일 우수 소방 모범기관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한편,

시설관리팀 최식 직원은 동일한 공로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홍창호 병원장,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에 선임

홍창호 병원장이 지난 11월6일 대한병원협회 제29차 상임이사회에서 정책이사로 선임됐다.

간호부, 임상연구 장려상 수상

간호부는 지난 10월22일 고대안산병원에서 열린 경기도간호사회 학술대회에서 임상연구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발표내용은 5층 서병동의 「신경블록 후 대상자가 지각하는 신체적 불편감에 관한 연구」이다.



아주대병원, 2003년 자연보호활동 우수단체에 선정

병원이 지속적인 광고산 자연보호활동 결과, 2003년 자연보호활동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하여 홍창호 병원장은 지난 11월3일 경기도청 신관 4층 회의실에서 순חק규 경기도지사로부터 표창장과 패종시계를 부상으로 받았다.

병원은 2002년 10월8일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른산 사랑운동의 일환인 1주체 1산 가꾸기 모범병원으로 선정되어 수원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광고산 자연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02년 10월12일 첫 자연보호 캠페인을 시작으로, 매회 150여명 내외의 교직원들이 참여하여 ▲ 쓰레기 수거 ▲ 자연보호 및 산불조심 캠페인 전단지 배포 ▲ 나무 심기 ▲ 등산객을 위한 워터 일으키기 운동기구 설치 등 적극적인 광고산 자연보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협력병원장 초청 간담회 및 중간관리자 연수 교육 실시

병원은 지난 11월14일, 15일 양일간 아주대학교병원 이주홀 및 구내식당에서 「협력병원장 초청 간담회 및 중간관리자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협력병원장 초청 간담회는 아주대병원이 협력병원 관계에 있는 병원의 병원장을 초청, 간담회를 통해 서로의 우의를 다지는 한편, 현재 지역의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동수원병원, 평택 굿모닝병원, 신갈 강남병원 등 총 18개 병원의 병원장이 참석했다.

협력병원 중간관리자 연수교육은 안산 한도병원 서산의료원, 천안의료원 등 총 36개 병원 50여명의 중간관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병원경영전략에 관한 교육과정으로 실시됐다.



저신장 무료공개강좌 개최 안내



소아과는 지역주민을 위한 청소년 저신장 무료강좌를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및 팔달구 보건소 후원으로 오는 12월15일 월요일 오후 3시에 아주대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강좌에서 소아과 황진순 교수는 성장장애의 다양한 원인 및 치료법, 정상적인 성장을 위한 영양 및 운동관리법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학부모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문의 전화 : 031-219-5619 >

신문. 방송에 보도된 아주대의료진

신문(Newspaper)

일시	매체	보도대상자	보도내용
10.28	조선일보 외	원위키(Wiki)서창희 교수	분취의학상 젊은 의학자상 수상
10.28	세계일보	신경과 방오영 교수	뇌경색환자 36% 혈관 협착
10.28	수원신문	신경과 방오영 교수	가벼운 뇌경색 적극적 관리 요구
10.29	경인일보	신경과 방오영 교수	가벼운 뇌경색 가볍게 보지마
10.30	경기일보	신경과 방오영 교수	뇌경색, 증상 가벼워도 병원 찾아야
11.1	헤럴드경제	신경과 방오영 교수	메디&팜 : 혈관협착 확장술 받아야
11.3	동아일보	신경통증클리닉 김찬 교수	신베스트닥터의 건강학 - 통증치료
11.3	한국일보	신경과 방오영 교수	가벼운 뇌경색 20% 2주내 증상 악화
11.5	한겨레	피부과 이은소 교수	늦가을 피부건조증 예방하려면...
11.5	한겨레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영상으로 잡은 건강이야기 - 발
11.10	동아일보	재활의학과 이일영 교수 재활의학과 나은우 교수	신베스트닥터의 건강학 - 재활의학
11.12	한겨레	신경과 방오영 교수	10분간 어질어질 · 울렁울렁... 뇌졸중 경고신호
11.12	한겨레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영상으로 잡은 건강이야기 - 뼈 나이
11.11	수원신문	핵의학과 윤석남 교수	암진단 첨단 영상장비 가동
11.13	중부일보	예방의학교실 조남한 교수	당뇨환자 65%가 발기부전 시달려
11.19	한겨레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영상으로 잡은 건강이야기 - 피라핀 성형
11.14	경기일보	예방의학교실 조남한 교수	당뇨환자 65%가 발기부전 경험
11.17	동아일보	피부과 이상낙 석좌교수 피부과 이은소 교수	신베스트닥터의 건강학 - 피부과
11.18	경향신문	중앙혈액내과 박준성 교수	의학Q&A- 잦은 코피, 건조해서 그렇죠
11.24	동아일보	산부인과 유희석 교수	신베스트닥터의 건강학 - 여성생식기 질환

일시	매체	보도대상자	보도내용
11.25	수원신문	소아과 배기수 교수	성교육 세미나네
11.25	중앙일보	중앙혈액내과 박준성 교수	코피 알보단 큰코 다친다
11.26	한겨레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영상으로 잡은 건강이야기 - 갈비뼈
11.26	경인일보	예방의학교실 조남한 교수	당뇨환자 65%가 고개속인 남성

방송(Broadcasting)

일시	매체	보도대상자	보도내용
10.27-28	Health Sky TV 베스트클리닉	피부과 이은소 교수 피부과 이상낙 석좌교수	베체트병클리닉
11.3-4	Health Sky TV 베스트클리닉	성형외과 박명철 교수	구순구개열클리닉
11.10-11	Health Sky TV 베스트클리닉	신경외과 조경기 교수	뇌종양클리닉
11.17-18	Health Sky TV 베스트클리닉	안과 문상호 교수	눈물길클리닉
11.24-25	Health Sky TV 베스트클리닉	신경외과 신용삼 교수 진단방사선과 김선용 교수	뇌졸중클리닉
11.5	경기방송 피프틴 강가리	홍청호 병원장	광고산 자연보호활동
11.14	SEN 수원방송	핵의학과 윤석남 교수	PET CT 가동

아주 사회사업기금

후원구조 가입 안내



아주대병원 사회사업팀에서는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비 및 재활용품 지원, 지역사회내의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아주사회사업기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 지로계좌번호 7657236
- ▶ 은행무통장 입금
제일은행 692-20-116147
- ▶ 예금주 아주대학교의료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약을 먹어도 누런 콧물이 계속 나와요



Q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큰아이가 6살인데 1년이 넘도록 누런 코가 계속 나와요. 병원도 다녀보고 약도 지속적으로 먹었는데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코 나온다고 놀린다고 하니 너무 속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약을 장기간 복용하고 또 계속적으로 의원에 다니는 것에 대한 부담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기의 어린이들에게는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도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자주 발생할 수 있지만, 일단 이렇게 장기적인 비루 증상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성 축농증 혹은 비염(특히 알레르기 비염 시에 자주 축농증 증상이 동반되므로 이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에 대한 정확한 진찰과 검사가 필요하고, 6세 전후의 아이에게 편도와 아데노이드가 만성 축농증과 비루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진단과정을 거친 후에 그에 맞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증상만 보고 치료하면 자주 재발하게 되며,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 이비인후과 김철호 교수 〉

이비인후과 외래 031-219-5747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어떻게 시작할까?

왜 운동을 할까?

원시시대 조상들은 아마도 매일의 생존을 위해 실재없이 체력을 단련했을 것이다. 현대에 와서 운동은 노동과는 다르다. 어떤 사람이 매일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힘을 많이 쓴다고 따로 운동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면 여기에는 오류가 있다. 신체일부의 과도하고 반복된 사용은 오히려 그 부위의 마모와 손상을 가져오기 쉽다.

운동은 어떤 효과가 있나?

만일에 더 오래 살게 하고 군살을 빼고 몸매를 더 아름답고 튼튼하게 하고 심장병을 예방하고 암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마음까지 즐겁게 해주는 묘약이 있다면 이 약을 복용할 것인가? 단, 이 약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복용해야하고 한번 복용에 30분에서 45분이 걸린다는 것이다. 또한 이 약을 복용할 때에는 몸에서 땀이 나고 숨을 몰아쉬게 된다. 이 묘약은 다음아닌 「운동」이다.

- ① 운동은 신체의 근력, 지구력, 유연성, 민첩성을 길러준다. 생활의 활력을 얻고 수많은 요통을 예방하고 낙상을 예방할 수 있다.
- ② 비만은 모든 성인병의 시초다. 적절한 식사와 규칙적 운동의 조화는 비만의 가장 큰 치료법이다.
- ③ 운동은 혈압과 콜레스테롤과 비만도를 낮추어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준다.
- ④ 혈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의 약 의존도를 낮춘다.
- ⑤ 뼈를 튼튼히 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한다.
- ⑥ 관절염이 있더라도 적절한 운동은 관절주변의 근육을 기르고 유연성을 주어 도움을 준다.
- ⑦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암(대장, 난소, 자궁경부, 자궁, 유방)의 발생빈도가 낮다.
- ⑧ 운동은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통해 근심과 우울을 날려 버리게 하고 잘 살고 있다는 느낌과 즐거운 기분, 나아가 자아를 높이고 행복감과 정신적 에너지를 가져다준다.
- ⑨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과는 운동이 주는 기쁨과 시간을 공유하며 우정을 키울 수 있다.

운동을 어떻게 시작할까?

어떤 운동이든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즐거움이 배가 되어 더욱 꾸준히 할 수 있는 요령이다. 중요한 기본은 각자의 건강상태에 맞춰 운동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나이와 체력, 체지방 분포, 심폐기능, 혈압, 앓고 있는 병의 유무와 정도, 혈중 지질분포, 근력 등 체력테스트를 거쳐 적합한 운동처방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신체이상을 느끼는 사람이 운동을 할 때에는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 최근 헬스클럽이나 스포츠센터에 등록하고 새로 운동을 시작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때 몇가지 고려해 볼 사항이 있다.

먼저 운동의 목표를 설정한다. 군살을 빼고 심폐기능을 증진하려는 것인지, 근력을 키워서 특정 스포츠를 잘 하려는 것인지, 손상되었던 신체부분을 재활하려는 것인지 등 방향을 정한다. 심폐기능 향상이 목표인 경우 신체 여러 부위를 골고루 여러 운동을 섞어서 순환운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근육을 한 세트당 10회에서 15회정도 반복하고 이때 각 세트 사이에는 30초 이상 쉬지 않는다. 하루 20분에서 30분간 일주일에 5회 이상 운동이 적당하다. 근력증진이 목표인 경우에는 키우고자 하는 근육을 피로한계에 도달할때까지 강화운동을 해야 한다. 순환운동에 비해 각 동작의 반복횟수는 세트당 8회 내지 10회로 줄이고 강도는 높이며 각 세트 사이에는 60초에서 90초 정도 길게 쉰다. 피로한 근육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1주일에 3회 정도 운동한다. 손상된 부위의 재활이 목표인 경우에는 순환운동과 비슷하나 더 약한 강도로 더 많은 횟수를 반복운동하고 손상된 특정 부위의 운동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운동 시작 전후에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꼼꼼한 스트레칭으로 준비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한다. 러닝머신 위를 뛰는 등의 유산소 운동시에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속도나 경사, 지속시간 등을 자신의 심폐기능에 무리가 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서서히 적응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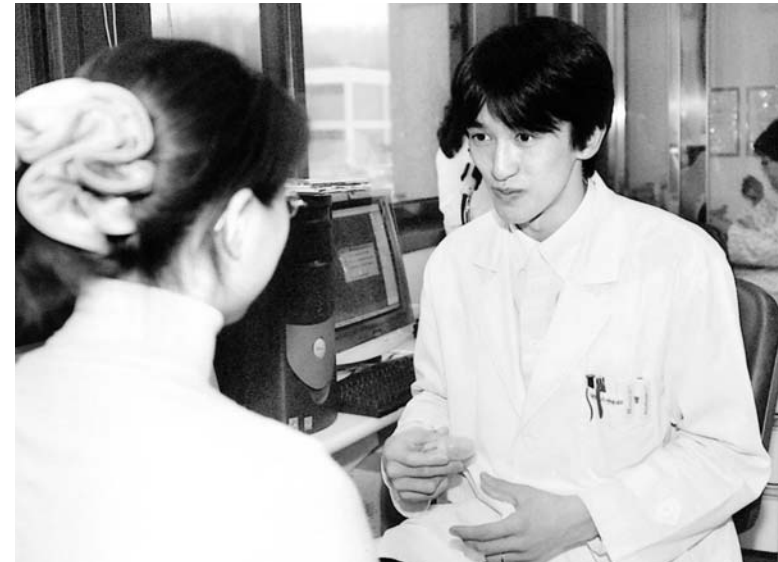
이 글을 읽고 나서도 아직 어떻게 운동할지 망설여진다면 우선 걷기운동을 해본다. 걷기운동은 안전하고 손쉽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 운동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즐겁게 사는 중요한 비결이다. 바로 시작하자!

김 현 정 교수 / 정형외과학교실



천식의 베테랑이신 어르신

나는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 외래의 아름다운 청년, 알러지 전문간호사다 **. 알러지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신 다양한 환자들을 매주 월·수·목요일에 만나고 있다. 그 중 기관지 천식 환자들은 대부분 흡아진 기관지 때문에 호흡기 질환을 동반한 분들이 많다. 천식 환자들은 좋은 약제들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또 국내 최대 규모인 면역치료 등을 통해 환자들은 훨씬 더 나은 삶을 유지하고 있다.



먹는 약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흡입기(inhaler) 사용이다. 흡입기는 몇가지 종류가 있지만 디스크스(동그란 모양으로 장난감처럼 생김)가 제일 많이 처방이 나고 있다. 분말가루를 디스크스를 통해 빨아들여 수축된 기도까지 전달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환자분들 중 대부분 만성적으로 평생 증상을 조절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어르신들이 많다. 이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을 꼽으라면,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에서 「박카스 아저씨」라고 알려질 정도로 오실 때마다 박카스를 준비하셔서 외래의 가운을 입고 있는 선생님들 모두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시느라 바쁘신 분이다. 한쪽 귀가 어두우신 어르신은 천식의 베테랑이라고 자부하시는 분이다.

「어르신, 요새 천식증상 어떠세요? 」, 「서울에서 오느라 힘들었어」

「흡입기는 잘 쓰고 계시지요?」, 「그럼, 내가 더 잘 알지. 열고~ 돌리고~ 마시고!」

「양치질은 지키고 계시지요?」,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매번 동문서답 사오정 같은 대화지만 꼭 필요한 것들은 잔소리처럼 반복해서 큰소리로 알려드린다. 흡입기의 사용법이 변경된 적이 있었는데 아침 2회 저녁 2회에서 아침 1회 저녁 1회로 바뀐 사실을 이해시켜 드리는데 긴시간 동안 큰소리로 설명해드려야 했다.

큰맘 먹고 서둘러 내려오시는 어르신은 진료 후 스테리움에서 그간의 인생 이야기를 꺼내 놓으신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흡입기 사용하기가 어렵고 귀찮다는 불평이 섞여있다. 베테랑이 되신 어르신들의 습관은 어떤 지적인 설득으로도 고쳐지기가 쉽지는 않지만 잘못된 사용법은 꼭 잡고 넘어간다. 굵은 펜으로 메뉴얼에 「아침 1번 저녁 1번, 사용후 꼭 양치질 하세요!」라고 큰 글씨로 적어드리며 아이들처럼 약속을 하기도 한다.

환자분들 중에는 흡입기 분말가루를 손에 털어서 모은 뒤 물에 녹여서 마시는 경우, 한번에 두번 흡입해야 할 때 「딸깍」 소리나게 돌려서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만 하고 1회 용량으로 두번 마시는 경우 등 흡입기 사용법을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다. 가끔 소아에게도 처방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분말가루가 매울 것이라며 울면서 거부하기도 한다. 냄새도 없고 맛도 없기 때문에, 흡입하고서도 느낌의 차이로는 복용여부를 구분할 수가 없어 아깝다고 두번, 세 번씩 흡입하시는 경우도 있다.

호흡을 통하여 1회에 흡입할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가벼운 흡식 호흡과 약한 입술의 힘으로 애쓰는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복식호흡을 먼저 알려드린다. 큰 목소리와 과장된 몸짓 설명 덕분에 어르신들은 짧은 만남이지만 설명해드린 작은 노력에 대단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신다. 민망할 정도로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시는 어르신들을 대할 때마다 「더 쉽게 더 정확하게 알려드려야지」하는 책임감이 생긴다. 오늘도 원칙은 중요한 것임을 상기하면서... 5Right : patient(환자), drug(약), dose(용량), time(시간), route(경로)!

이 현 준 간호사 /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 외래



선식과 생식

어려서 외갓집에 가면 할머니께서 큰 양푼에 막 퍼 올린 우물물로 미숫가루를 개어 주시곤 했다. 갈색의 되직한 것이 얼마나 달고 고소하던지, 한 그릇을 정신없이 마시고 나면 배가 너무 불러 정작 식사는 제대로 못했던 기억이 있다. 어린 시절 유일한 여름 음료였던 그 미숫가루가 요즘은 선식과 생식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간식 혹은 식사대용으로 자리를 잡은 지 오래고, 최근 들어 이유식, 다이어트식, 질병치료식으로 그 쓰임이 다양해지고 있다.

흔히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선식과 생식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선식」은 미숫가루에서 파생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곡물을 찌고 볶아서 가루로 만든 것을 말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숫가루의 원료가 채소류, 견과류, 해초류 등으로 다양해지고, 제조공법도 현대화되었다. 이러한 고급화된 미숫가루를 기존의 재래식 미숫가루와 구별하여 선식이라 부르고 있다. 「생식」은 열을 가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화식(火食)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옛 선조들이나 생식마을에서는 각종 곡류와 솔잎을 중심으로 한 채식을 생식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자연과 멀어지고 외식의 기회가 많아진 현대사회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생식을 섭취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생식 본래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간편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가공 처리한 제품들이 시장에 등장하였다. 현재 업계에서는 약 30~50여 가지의 곡류나 채소류, 버섯류, 해조류, 과일류 등 대부분의 원료를 익히지 않고 저온 건조하여 분말로 만든 제품을 생식이라 일컫고 있으며, 일부 업체에서는 씹어 먹을 수 있는 알갱이 형태의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건강지향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선식보다는 생식을 선호하고 있었다. 선식은 일주일에 1~2번, 물이나 우유에 타서 설탕을 첨가하여 먹고 있으며, 생식은 매일 물이나 우유에 꿀을 첨가하여 먹는다고 한다. 두 제품 모두 하루 중 아침에 먹는 경우가 많았다(선식 46.7% 생식 61.3%). 선식은 생식에 비해 불규칙적으로 먹고 있었고, 성인의 경우에 선식보다는 생식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익히지 않은 음식은 이유기의 유아에게는 소화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의 경우 생식을 이유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었다.

시판되고 있는 선식 및 생식 제품의 성분을 분석하여 본 결과, 조단백 함량은 선식이 유의하게 높았고, 조지방(지방 영양소) 함량은 생식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밖에 수분, 조지방, 조섬유의 함량은 제품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선식과 생식은 제조방식의 차이와 함께 각 제품의 원료 배합비가 수분 및 일반성분의 구성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생물 검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많은 양의 대장균이 검출되어 이들 제품에 대한 적절한 위생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생식 제품이 선식보다 위생적으로 더 안전할 것이라는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와는 달리 실제로는 미생물 위해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같은 원료를 사용하는 분말식품이라 할지라도 선식과 생식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으며, 부주의한 선택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몸에 좋다는 식품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과연 몸에서 모두 이용이 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식품 성분들 간에는 길항작용을 하는 요소와 상쇄효과를 갖는 인자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식품의 첨가는 그 각각의 특성을 살리지 못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역작용을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광고에 현혹되기 보다는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항상 어떠한 식품들이 들어있는지, 신선한 것을 사용하였는지,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현명한 태도가 필요하다.

간편함과 건강 때문에 선택하는 선식과 생식은 반드시 세계의 균형 잡힌 식사와 적당한 운동과 함께 이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이 만족될 때 비로소 건강한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유 숙 연구장사 / 치료방사선과학교실



아주대학교병원 영양연구회에서 콩, 된장, 두부, 차의 종류와 효능, 야채류와 비타민, 김치와 젓갈 등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음식 속 건강」을 연재합니다. 영양연구회는 암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아주대의대 교원 등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치료방사선과 전미선 주임교수를 주축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깨끗한 관절경 수술

관절경 수술은 선진 각국에서는 인체의 거의 모든 관절내의 병변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필수적인 수술방법으로 입증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빠르게는 30년 전 부터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관절경 수술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아주대학교병원에서도 정형외과 외래진료가 시작된 1994년부터 관절경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관절경을 통한 여러 가지 수술을 함으로써 독보적인 위치를 갖게 되었다.

관절경 수술은 0.5cm 정도의 피부 절개를 통하여 관절경과 기구들을 삽입하여 수술을 시행한다. 관절경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정밀한 수술

이 가능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 대부분의 내시경 수술은 상처가 작고 회복이 빠른 반면, 수술이 불완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단점이다. 그러나 관절경 수술만은 예외다. 손상된 무릎 연골판을 봉합·절제하는 관절수술은 관절막을 찢고 수술칼을 이용하는 기존 수술법으로는 「깨끗한 수술」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3~4mm의 가는 관으로 기구를 집어 넣어 수술하는 관절경의 발달로 수술칼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병소(病所·병든 조직)도 정교하게 수술할 수 있게 됐다. 또 관절막을 찢지 않음에 따라 관절의 유착(癒着·굳어서 뻣뻣해지는 증상) 등 부작용도 최소한으로 줄었다. 또 관절막을 찢고 육안으로 관찰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병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도 관절경 수술의 장점이다. 관절경 끝에 달린 특수 카메라는 전방 160도 범위로 관절 내부를 확대해 모니터에 비쳐 주기에 육안관찰보다 훨씬 정밀하게 관절내 구석구석의 병소(病所·병든 부분)를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내시경 수술은 숙련도가 필요한 수술로 경험이 많은 전문의가 시행할 수 있다. 현재 아주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서 사용중인 관절경은 2대이며 조만간 1대를 추가 구입함으로써 더욱 전문성을 갖게 되었다. 관절경을 통해 치료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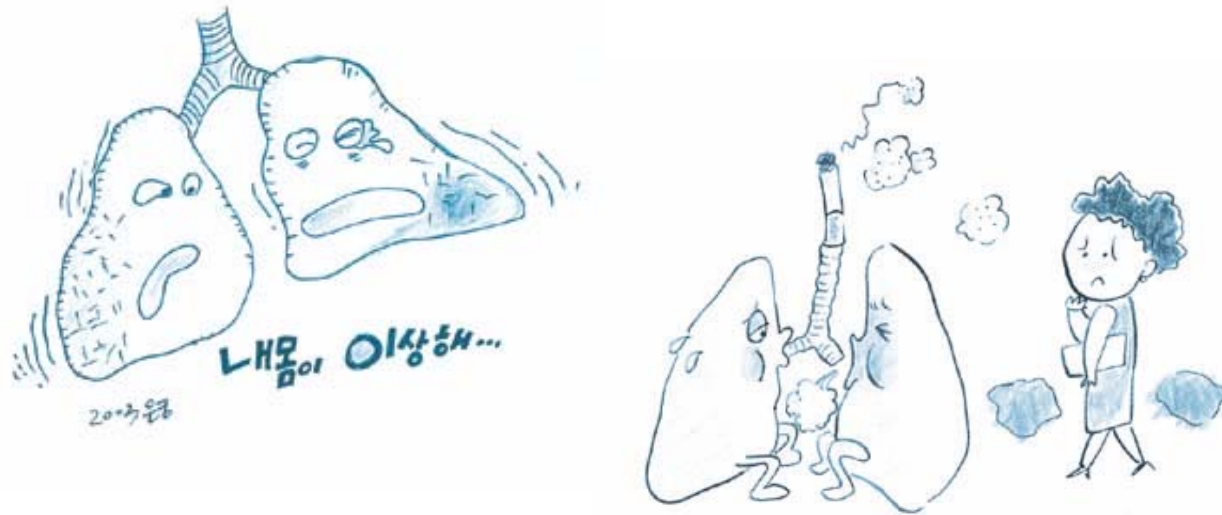


수술은 일단 견관절, 주관절, 수근관절,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등 모든 관절의 병변에 이용할 수 있다. 그중 수술빈도가 높은 관절은 견관절과 슬관절로 견관절에서는 회전근개 파열, 견관절 탈구, 충돌 증후군 등이 있으며 슬관절에서는 전방십자인대 파열, 후방십자인대파열, 반월상 연골파열, 슬개-대퇴관절 장애, 관절연골의 병변과 관절염의 진단과 치료에 이용될 수 있다. 본원에서 매년 400여건의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 병 현 교수 / 정형외과학교실



폐에 대한 상식



폐렴은 옮는다?

폐렴의 원인균은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폐렴은 자신의 구강이나 상기도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균들을 흡입함에 따라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바이러스, 마이코플라스마, 레지오넬라균과 같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형태의 폐렴도 존재하지만, 그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모든 폐렴이 타인에게 전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폐렴환자가 주위에 있다고 반드시 옮을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답 : △>

재발한 폐결핵은 반드시 이전과는 다른 약으로 치료해야 한다?

이전에 폐결핵을 앓았던 적이 있는데 다시 결핵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할 경우, 지난번에 일단 완치판정을 받았었다면 이는 결핵의 「재발」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럴 경우 이전에 사용하였던 약제를 모두 제외한 새로운 약제의 조합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약제를 중심으로 재치료를 시작하고 추후에 결핵균 약제 감수성 결과를 확인하여 필요할 경우 처방 내용을 바꾸게 됩니다. 따라서 재발한 결핵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모두 새로운 약으로 바꿔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정답 : ×>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흡연자에게만 생긴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흡연이지만 그렇다고 흡연자에게만 이 병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흡연 외에 이 병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위험인자로는 환경오염, 직업상의 유해물질 노출, 유전적인 소인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폐결핵에 의한 기도의 손상 역시 기도내의 만성 염증과 폐쇄를 유발하는 중요 원인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만성적인 기침과 객담, 호흡곤란이 있을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답 : ×>

신 승 수 교수 / 호흡기내과학교실



인간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정신, 人本의료재단

(해운대 자명병원, 부산 효부병원)

인간중심의 진료를 펼쳐나가는 참병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내에 해운대 자명병원과 부산 효부병원을 두고 있는 人本의료재단은 1998년 사회복지법인으로 시작하여 1999년에는 현 해운대 자명병원, 2001년에는 부산 효부병원을 개설하였다. 해운대 자명병원은 정신건강 전문병원의 선두주자로서, 부산 효부병원은 치매 및 뇌졸중 등 각종 노인성질환의 전문병원으로서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인간중심의 진료를 펼쳐며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70여 명의 人本의료재단 임직원 모두는 심신 질환의 극복 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으로의 회복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일하고 있다.



앞선 의식으로 차별화된 진료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

해운대 자명병원과 부산 효부병원은 기존의 병원 이미지를 탈피하여 삶의 또 다른 휴식공간이 되고자 노력하는 병원이다. 다양한 진료 시스템과 치료체계를 갖추고 환자 및 가족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상의 고객만족을 추구하고 있다. 진료실, 병실, 각종 치료실, 휴게실, 면회실, 대기실 등의 각종 시설은 마치 내 집과 같은 안락함과 편안함을 제공하며, 관광특구 해운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 장점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환자들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최근 11월11일에는 일본 대마도 시의회 의원 15명이, 13일에는 일본 큐슈대학교 의료경영대학원의 다카케 야스오 교수가 효부병원의 진료 환경 및 시스템을 견학하고 돌아간 바 있다.

건강한 인생을 위한 총체적인 의료서비스 네트워크

해운대 자명병원은 그동안 알콜클리닉, 정신분열병 재활클리닉, 우울증클리닉 등을 개설하여 다양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최근에는 소아·청소년 정신과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클리닉을 추가로 개설하여 더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부산 효부병원의

개설과 함께 노인을 위한 전문치료를 시행하면서 人本의료재단은 소아에서 노인까지 건강한 인생을 위한 총체적인 의료서비스 네트워크를 갖추게 되었다.

연구하는 병원으로 지역사회 정신의학 발전을 선도

해운대 자명병원은 매년 「자명정신의학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지역 정신의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주도해 왔다. 정신의학분야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저명한 강사들을 초빙하여 열린 강연과 토론의 시간을 갖고 있다. 「자명정신의학 심포지움」은 참가자들의 열렬한 호응과 관심 속에서 일선에서 일하는 지역사회 정신의학 전문가들의 학문적 갈등을 해소하고 최신 의학정보를 받아들이는 배움의 장으로서 앞으로도 그 자리매김을 더욱 굳건히 해 나갈 것이다.



▲ 人本의료재단 산하 해운대 자명병원(왼쪽)과 부산 효부병원(오른쪽) 전경

아주대학교병원과 함께 초일류병원을 지향하며

人本의료재단은 2002년 아주대학교병원과 협력병원을 체결하여 유용한 의료기술 및 정보 등을 교류하며 더욱 견고한 의료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인간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정신」으로 정신의학 분야와 노인 건강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초일류병원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나가는 人本의료재단의 모습에 기대에 찬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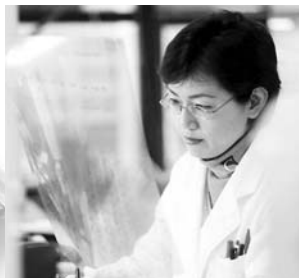
김 영 배 팀장 / Q팀

최고의 의학명문 아주대학교의료를 여러분이 키웁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발전을 위한 자리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육·연구동 건축기금 조성

저희를 믿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의력이 있는 의과대학, 질병 연구와 치료의 흐름을 선도하고자 하는 저희 아주대학교의료원의 의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신설되는 교육·연구동에는 첨단 연구시설과 인력이 집중되면서 정보 교류와 협력, 시설의 공유를 통해 역량을 극대화하여 아주대학교의료원 연구의 중심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발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육·연구동 건축기금 모금 현황

▶▶총계

구분	회원수	약정액	기부총액
월간	4명	1,420,000원	11,319,000원
누계	328명	1,063,920,531원	994,050,331원

성명	약정액	의료원과 관계
구진용	100,000	권역응급의료센터
김남훈	300,000	의용공학팀
박승현, 문세희	500,000	의용공학팀, 산부인과
이승남	500,000	의용공학팀
전진옥	20,000	외부후원
교직원 분납분	9,199,000	(교직원 급여 공제)
새빛병원	2,000,000	기약정 분납분(협력병원)

■ 우리 모두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의학발전과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희를 믿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양한 형태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주식, 기타 자산이나 의료기기, 부동산, 귀중품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도 좋은 후원이 됩니다.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와주십시오.

- 지로납입 전화신청 031-219-4000
- 자동이체 거래은행 신청 후 후원회에 전화통보
- 무통장 입금 거래은행 예금주 : 아주대학교의료원
- 제일은행 692-20-166907
- 한미은행 542-00896-248
- 농협 116-01-060243
- 국민은행 593501-01-082841
- 우리은행 177-089499-13-102

(가나다순)
2003.10.23~11.25



아주대학교병원
주요 전화번호 안내

- 대표전화 : (031) 219-5114
- F A X : (031) 216-6656
- 전화예약 : (031) 219-5451
- 종합안내센터 : (031) 219-5500~1
- 외국인안내 : (031) 219-5546
- 응급의료센터 : (031) 219-6000
- 건강증진센터 : (031) 219-5555

진료과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흉부 외과	이철주	5749	금	금	성인심장외과	
	소동문	5750	월, 수	월	소아심장외과, 혈관외과	
	최 호	5750	화, 목	화	폐·식도외과, 다관중, 하지정맥류	
	김정태	5750		수, 금	심장외과, 일반흉부질환	
5717	강준규	5750		화, 목	심장외과, 일반흉부질환	
	일반진료	5750	토		심장외과, 일반흉부질환	
정형외 과	강신영	5544		월*, 목	수부 및 상지외상, 기형, 미세수술외과	
	민병현	5543	월, 금(초진)	수*	슬관절 및 건관절외과	
	전창훈	5542	화*, 목, 수		척추외과, 족관중, 최소침습수술	
	원예연	5542	월*, 수	목	인공관절외과	
	한경진	5543	목*	월, 화	수부 및 상지외과, 미세수술외과, 사지혈관신경외과	
	김현정	5542	수*	화, 목	발목 및 발의 질환	
	조재호		금	수	소아정형(변형교정, 키 늘리는 수술), 외상	
	일반진료	5542	화, 수, 목, 토	금	*는 관절염센터 진료	
신경외 과	조경기	5661	월, 목	목	뇌종양, 척추질환	
	조기홍	5662	수, 목	월	척추질환, 신경통증치료	
	윤수현	5662	화, 금	화	소아신경외과, 뇌종양	
	안영환	5662	화, 금	금	안면경련증, 삼차신경통, 방사선수술, 뇌종양	
	신용삼	5663	월, 수	수	뇌혈관질환, 뇌졸중, 중재적 치료	
김세혁		토	수, 금	뇌종양, 외상		
성형외 과	박명철	5611	월, 수, 금		유방성형, 소아기형, 미용성형	
	정재호	5612	화, 목	금	악안면부성형, 미용성형	
	박동하			월, 수, 목	수부성형, 미용성형	
	황인석		토	화	미용성형	
일반진료		월-토	월-금			
산부인 과	오기석	5595	화, 목, 금		부인과 질환	
	유희석	5594	화, 목	월	부인암	
	김행수	5593	해외연수중		고위협산모, 초음파 (박수진료·예약에 한함)	
	장기홍	5594	월, 수	화, 금	부인암, 복강경수술	
	양정인	5593	월, 수, 목, 수		고위협산모, 초음파 (박수진료·예약에 한함)	
	황경주	5643	월, 수, 금	월, 금	불임, 습관성 유산, 부인과(복강경)	★
	이정필	5595	월, 토	수, 목	부인암, 산과, 부인과	
	김미란	5643	화, 목, 토	화, 목	불임, 습관성 유산, 부인과(복강경)	★
일반진료		월-토	월, 수, 목, 금			
안과	유호민	5669	월, 수, 금	월(예약), 수(예약)	망막, 초자체, 백내장	
	안재홍	5670	월, 금	화	각막, 녹내장, 백내장, 굴절수술	
	장윤희	5672	토	월, 목	사시, 소아안과	
	문상호	5671	화, 토	금	안성형, 백내장, 렌즈클리닉	
	일반진료	5671	월-토	월-금		
이비인 후과	박기현	5742	월, 금		난청, 어지럼증, 귀종양 및 두개저외과	
	문성균	5742	화, 수, 목, 금	월, 목	난청, 어지럼증, 귀종양 및 두개저외과	
	정연호	5742	목(어지럼증)	화, 금	난청, 어지럼증, 귀종양 및 두개저외과	
	김철호	5746	수, 목(음성클리닉)	월	두경부 종양, 음성장애, 기관·식도 질환	
	김현준	5746	토	화, 수	비염, 부비동염, 후각장애	
5747	최호석		화, 토		난청, 부비동염	
	일반진료		월-토	월-금		

진료과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비뇨 기과	김영수	5586	수	금	소아비뇨, 여성 방광염	
	김세종	5587	월, 화	목	비뇨기 종양(암)	
	안현수	5588	목	월, 화	요로결석, 불임	
	최종보	5587	화, 금	수	베뇨장애, 요실금, 남성과학(성기능장애)	
	최민규		토	화, 목	요로결석, 남성과학	
일반진료		월, 수, 목, 금, 토	월, 수, 금			
재활 의학 과	이일영	5795	월, 수, 금		척수손상	
	나은우	5796	화, 목	목, 금	뇌졸중, 뇌손상, 절단자 재활	
	임신영	6440	토	월, 화, 수	소아재활	
일반진료		화	목			
지방사 신과	지선용	5854	월, 화, 목		뇌혈관질환 중재적 치료	
	원제환	5863		월, 수, 금	혈액관상동맥질환, 폐혈관질환, 하지정맥류치료	
	일반진료	5145	수, 금, 토	화, 목		
치방사 신과	전미선	5884	해외연수중		종양(부인과, 유방암, 소화기암)	★
	오영택	5884	월-토	월-금	종양(두경부, 폐종양, 비뇨기암)	
	강승희	5884	월-토	월-금	종양(뇌종양, 육종, 정위방사선치료)	
	일반진료					
해안 의과 5939	윤석남	5947	월-토	월-금	해안학(진단, 동위원소치료)	
	윤준기	5947	월-토	월-금	해안학(진단, 동위원소치료)	
신안 의과 5844 5906	이경중	5845		화		
	박재범			목		
일반진료	5644	토	월-금			
가정 의학 과	김광민	5958	월, 수, 금	화	만성피로, 노화관리, 남성갱년기	
	박재범	5957	화, 금	수, 목	여성갱년기, 스트레스, 가족상담	
	김범택	5957	월, 수, 목	월, 금	비만, 골다공증	
	신상호	5958	목		비만	
	손중천	5958	토	수	갱년기, 금연	
	정유지		화	화		
	일반진료		월-금	월-금		
치과	황병남	5869	화*, 목*, 금	월, 화, 목*	인공치아이식, 턱관절장애	
	이정근	5869	월, 화*, 수, 목*	화*, 수*, 목	악안면기형, 악안면외상, 인공치아이식	★
	고석민	5869	월, 화, 금*	월*, 수, 금*	인공치아보철, 틀니	
	일반진료		토	월-금	재진환자만 가능	

진료과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야간	세부진공	비고
응급 의과 6001	조준필	6005	월, 수	금	화	외상외과, 응급질환	
	정윤석	6005	화, 목	수, 금	목	독극물중독, 응급질환	
	이국종	6005	금	월, 목	월, 금	외상외과, 외과계 응급질환	

1. 진료시간표는 각 과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는 특수진료입니다.
3. *는 세부진공만 진료합니다.
4. ■는 추가비용징수 선택진료의사입니다.
5. ★는 진료시간이 변경된 의사입니다.
6. 전화문의는 031+219+ 해당 진료과의 번호를 누르십시오.